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宋在雲
印刷人 李揆行
主幹 林英正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長 盧建煥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267 8131～9
本社直通 267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今週一言

진리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났기 때문이고, 진리에는 영혼(人)이 없으니 시간의 앞뒤의 끝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維摩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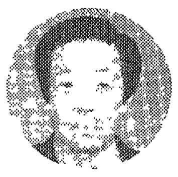
본교 의대부속병원 개원

내달 1일부터 韓영빈박사 기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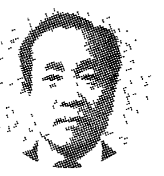
“동국醫術의 새전기이룩”

포항기독병원 3백병상

경주부속병원 오는10일 착공



◇기증자 韓榮彬박사



◇金鍾高병원장

동국의 숙원사업이자 동국인의 염원인 의대부속병원의 꿈이 실현, 학교 발전의 큰 계기가 마련됐다.

학교당국은 지난8월 28일 「포항 기독병원」(시가 2백억원상당)을 韓榮彬(75)씨로부터 기증정신에 입각해 인수, 오는10월1일부터 의과대학부속 포항병원을 개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 죽도2동에 위치한 「포항기독병원」은 대지 1천7백평에 연건평 2천4백평 지상5층, 지하 1층 건물로 허가병상수는 3백78병상 (현재 가동병상수는 3백50베드) 이다.

포항기독병원의 의료진은 전문의 20여명과 일반의 10여명, 간호원 2백여명등으로 되어있으며 진료과목은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안과·비뇨기과·치과·소아과·건강관리과·마취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등 총14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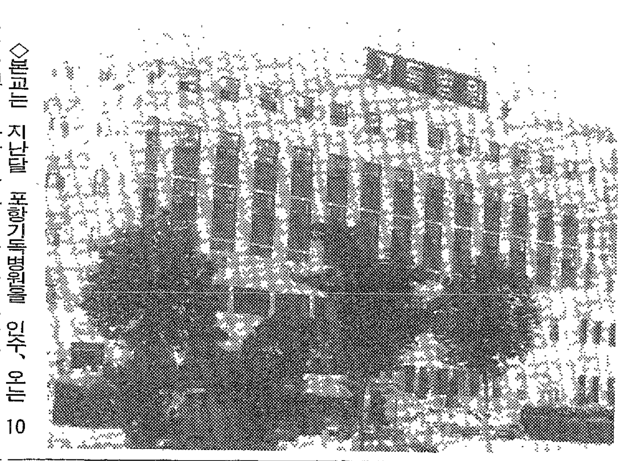
학교당국은 21일 의과대학부속병원 원장에 의과대학 길종섭학장을 임명했는데 李智冠총장은 지난 16일 本社지령1천호기념자축연에서 『포항에 있는 기독병원을 인수, 오는 10월 1일부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포항병원으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지난해 부지가 확정된 경주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은 4만3천평의 대지면적에 7층건물과 3백여개의 병상을 갖춘 4층 규모의 의과대 강의동건물의 토목공사를 마치고 각각 내년 12월과 4월완공예정으로 오는 10일 착공에 들어가는데 시공업체는 공개입찰을통해 98억에 우성건설에게 낙찰됐다.

한편, 포항부속병원의 개원식과 경주의대부속병원의 착공식을 오는 10일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인수한 포항병원이 경주에 지리상 근접해 있기때문에 포항병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등을 강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증자 한영빈박사는 1916년生으로 ▲41년 만주 국립대학 용정 개척의 학원卒 ▲53년 제18육군병원 근무 ▲63년 우석대卒 ▲70년 고려대의전신인 우석대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교는 지난달 포항기독병원을 인수, 오는 10월1일부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포항병원으로 정식개원한다.

本紙1천호 자축연 성황

지난16일 동인등에 공로및 감사패수여

◇本紙 지령1000號를 기념하는 자축연이 지난16일 있었다。

東大新聞 지령1천호 자축연겸 축쇄판·컬럼선집출판기념회가 本社주최로 지난16일 오후6시30분 李智冠총장、黃珍經이사장、鄭在哲총동창회장、崔載九명예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수、本社동인등 관계인사 2백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앰배서더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李智冠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대신문은 동국의 산증인으로 역사와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이번 동국중흥의 한 일원인 포항병원 인수등 동국중흥의 역사와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기자대표로 노건환(국문과3) 본사편집장은 인사말에서 『지령1천호의 동대신문이 있기까지 성원과 질책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대신문이 대학신문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론으로 동국발전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 본사 임수현(사회3) 취재부장은 李智冠총장에게 동대신문 축쇄본및 기념컬럼집 「달 하나 千江에」를 봉정했다.

이날 행사에서 본사사장인 李총장은 金鎭福(전국회의원) 李相直(세종대교수) 尹靑光(동국출판사사장) 李昌植(MBC TV부국장) 宣元彬(법보신문 편집국장) 동인등 13명에게 공로패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행사에는 黃珍經이사장、鄭任哲총동창회장、본교교직원노동조합、尹鎰均행정대학원동문회장、李揆行한국경제신문사사장、延世春秋社、中大新聞社등에서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학교당국서 성명발표

李智冠총장을 비롯한 학처장급 보직교수 21명은 지난15일 최근 학내사태와 관련「친애하는 학생여러분에게」와 「친애하는 학생간부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학교당국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성명서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중 「교수회칙전면개정및 교수회의재결성」、「교수회칙시안 5인소위위원처벌」과 「교수회의회장 즉각사퇴」에 대해 「교권에대한 전면부정」이라고 일축하고 『교수회의는 학생과 교수사이의 입장과 직분상의 다름을 인식할때、학생의 개입은 「교권침해」라며 폭력이나 파괴에 엄중히 대처할것도 밝혔다.

社告

수습기자 추가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本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실천하는 知性을 찾습니다

①모집인원 : 서울및 경주캠퍼스 약간명
②응시자격 : 1學年 男女在學生
③모집분야 : 일반기자(사진기자 포함)
④제출서류 : 本社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1매(지원서는 본사총무부및 학생회관 수위실서 배부中)
⑤원서접수 : 9월28일(木)오후4時限
⑥시험일자 : 9월28일(木)오후5時
⑦시험과목
1차필기—국어·상식·작문
2차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⑨기험장소 : 서울=학림관 J 201
경주=원효관 A 301

※학생記者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東大新聞社

제2캠퍼스 연합결성

지난4일 “자주적 학생상 구현” 다짐

「전국대학교 제2캠퍼스 총학생회 연합회 건설준비위원회」(이하 건·춘·위) 결성식이 지난13일 오후5시 제2캠퍼스 총9개대학 총학생회대표및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 충주캠퍼스 민중광장에서 열렸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참석하지 못한 중앙대(안성)를 제외하고 本校를 비롯, 고려대(조치원)、경희대(수원)、상명여대(천안)、연세대(원주)、외대(용인)、단국대(천안)、건국대(충주) 등 8개대학이 참가한 이행사의 1부에서는 건국대 총학생회장 정진용(법학3)君의 사회로 전국대학교 제2캠퍼스 총학생회 연합회 결성식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각대학 노래패 및 풍물패 공연이、3부에서는 분교행정의 악법철폐를 뜻하는 모의장례식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결성식은 길놀이를 시작으로 「건·춘·위」 위원장 이진우(경희대총학생회장·건축4)군이 준비위원장및 의장단 소개를 한뒤 출범선언문을 통해 『올바른 학원상과 자주적인 학생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원은 민주주의 생활체험과 민족자주의식 함양의 장으로서야 한다』며 『7만 제2캠퍼스 청년학도의 단결된 모습으로 끝까지 투쟁할것』을 선언한뒤 제2총연 건설의 배경및 목적、위상및 사업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건·춘·위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연대조직으로써 의장단 아래 실무를 담당하게될 사무국·정책국·선전국을 두고 경기、충청、강원·경북등3개지역으로 분화된 지역별 연락체계를 갖췄는데 경기지역은 경희대·외대·한양대·중앙대、충청지역은 고려대·단국대·상명여대、강원·경북지역은 동국대·연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적 체계아래 건춘위가 합의한 사항으로는 한 대학내 동일한 학과를 둘수 없고 제2캠퍼스가 종합대학의 면모를갖춰야 된다는것과 졸업생의 사회진출시 차별성을 두는 기업에는 공문을 보내고 시정되지 않을경우 불매운동등의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것 등으로 현재의 파행적 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율 79%

학내문제로 저조해

88학년도 제2학기 등록이 79%(경주캠퍼스포함)의 등록율을 보인 가운데 지난10일 2차마감됐다.

이는 전체등록인원 1만6천7백명중에서 1만3천4백명이 등록한것으로 예년 같은기간에 비해 7·8% 저조한것인데 1학기 학사일정변동으로인한 성적처리 지연과 등록거부등이 그요인인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무처에서는 미등록자에대한 접수를 오늘(20일)까지 연장해서 받고있다.

학자투 관련 학생총회

지난15일 열려

「비상학생총회」가 지난15일 오후2시 학생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학생회장 최재성(불교4)·부총학생회장 이호영(국문4)·학자투위원장 이승민(영문3)군등이 차례로 나와 학자투의 완수를 위한 동악 1만학생들이 단결하여 투쟁을 호소했으며 학자투 파기의 주범인 오국근교수의 퇴진, 교수회재결성등을 요구한후 앞으로의 투쟁형태에 대한 토론을 갖고 본관 교수세미나실 점거농성에 들어가 오늘(20일)까지 6일째 총학운영위원들이 농성중이다.

한편 지난13일에는 「총장간담회보고및 최후통첩선포식」이 총학주최로 학생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려 비상학생총회의 사수를 결의했다.

보리수

長明燈

尹炳植

여름의 캠퍼스는 조용하기만 했다. 교정을 가득 채웠던 6월의 그 열기도、함성도、깃발도 없었다. 밤이면 넓은 캠퍼스는 더욱 조용했다. 단지 도서관 건물의 불빛만이 대학이 잠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여름 내내 그 불빛은 밤마다 대학을 밝히는〈長明燈〉처럼 어두운 캠퍼스를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이 그래도 대학이 대학으로서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학의 현실이 아무리 비관스럽다 하더라도 도서관과 연구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한 대학은 희망이 있는것이다.

대학의 본질은 연구와 교육이다. 대학은 다른것은 모두 양보할 수 있어도 연구와 교육、이 두 가지 만은 절대로 포기할수 없다. 이것을 외면할 때、대학은 그 존재이유를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 대학의 민주화、제도의 개선、시설의 확충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나 몰두 했었다. 왜、강의실은 그렇게 텅텅 비게 했고、도서관과 연구실의 불은 왜 저렇게 희미하게 빛나게 하고 있는가。연구와 교육이 외면된 대학에 제도나 시설이나 행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실과 강의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지난 6월에는 그것이 하나의 「용기」처럼 보여졌다. 바깥의 그 「혼란」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진지하게 강의에 열중하고 있던 그런 강의실을 지나칠때마다 고개가 수그러졌다. 『저들이야 말로 진정한 大學人들이다. 저들이 바로 대학의 주인들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여름의 그 조용함이 끝나고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 이 가을에는 도서관과 연구실의 불이 더욱 밝게, 더욱 오래 빛나게 되기를 빈다. 그리고 교정에서의 열기보다는 강의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란다. 대학이 그리고 대학인이 그 존재이유와 보람을 찾을곳은 바로 이곳이기때문이다.

경영학과 동창회

재학생3명에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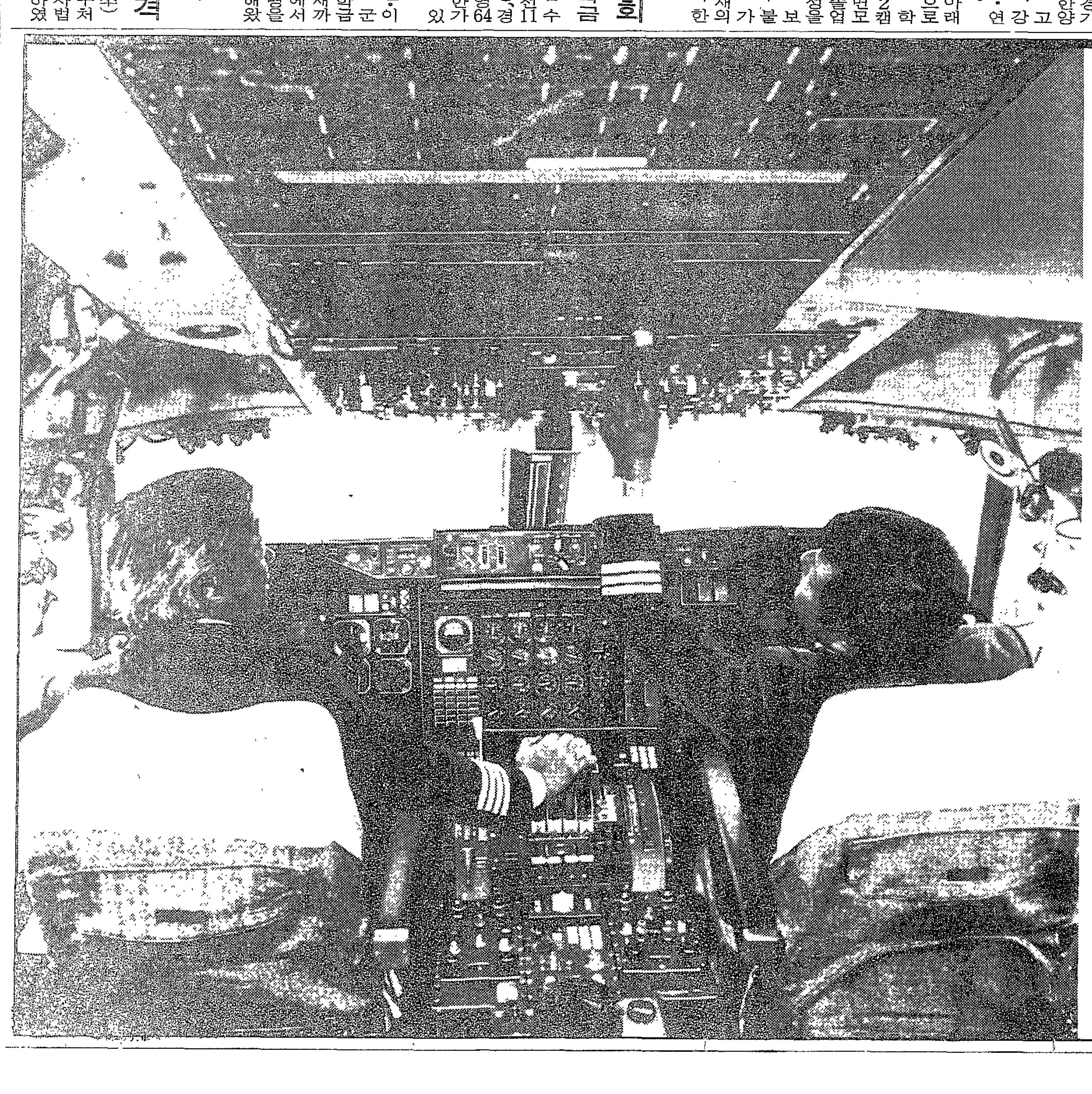
경영학과 동창회장학금 수여식이 오늘(20일) 오전11시30분 李順龍경상대학장、경영학과교수 백정기(경영64졸) 동창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학장실에서 있었다.

장학금수혜자는 서용선·이병록(4)·김사원(3)군등 3명인데 同科의 장학금은 지난 76년부터 현재까지 한학기에、재학생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3명을 선발、2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이상철同門 합격

올司試 2차시험에

본교 이상철(법과88卒)동문이 지난 17일、총무처에서 주관한 제32회 사법고시 2차시험에 합격하였다.



“창공의 신사—파일럿트 멋진 기회가 당신을 찾아왔읍니다”

—대한항공 조종훈련생 모집—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속에 세계굴지의 항공사로 성장한 대한항공이 ‘전세계 노선망 구축’ 의 의지를 실현할 정예 조종사 양성을 위해 비행훈련원을 설립하였읍니다.
조종 경력보유자에게만 주어졌던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조종사의 꿈을 가진 모든분께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의 조종훈련생은 교육이수후 소정의 자격 취득시 대한항공 조종사로 채용됩니다.
우리의 날개를 세계로 펼쳐나가는 파일럿트——
대한항공과 함께 당신의 꿈을 가꾸어 보십시오.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인원	응시자격
○○명	●1961년1월1일이후 출생자(단, 자가용조종사 면장 소지자는 1959년1월1일이후 출생자) ●'89년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제한없음)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71조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자 (제1종) ●면장소지자 및 항공운항, 항공공학 전공자 우대

교육기간 및 처우

●교육기간 : 2년(교육기간동안 전원 기숙사에 합숙)
●처 우 : 대졸사원에 준한 처우(교육이수후 소정의 자격취득시 대한항공 조종사 요원으로 입사)

제출서류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 1부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전형방법

●필기시험

과목	일시	장소
영어 일반지식	10월 9일(일) 10 : 00～12 : 30	이화여고

●추후 전형절차 : 성격·적성검사/적성면접 → 신체검사 → 비행적성 실기시험 → 면접
*추후 전형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 예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1988년9월21일～10월5일 17시까지(공휴일 제외)
●교부처 : 각대학 및 접수처
●접수처 : 서소문 KAL빌딩 및 부산, 대구, 광주, 제주지점

기 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시는 시험당일 안내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인사부 또는 접수처로 문의바람
TEL : 서울 : 751-7334, 부산 : 463-1031, 대구 : 423-4237
광주 : 232-7770, 제주 : 22-4207

대한항공비행훈련원

社說

분단고착화는 안된다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는 날은 과연 언제쯤일까.

이에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을지도모른다. 단지 동강난 반도의 허리를 하나로 잇기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뿐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들은 통일정책이랍시고 교류방안을 수없이 내놓았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말았다. 이는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주장만을 일삼아왔기 때문일것이다.

현 정부도 통일논의의 개방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대화의 창구만큼은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함에따라 남북간의 적대감과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고자하는 각계의 소리가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속에서 현정부의 통일의 의지를 읽을수 없으며, 단지 일당독재를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하려한다는 인상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특히 남북분단을 영구히 고정화시키려 하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진행중인 올림픽의 경우만봐도 동서양진영이 거의다 참여하고 있으나 가장 가까와야 할, 더구나 같은 민족인 북한의 참여를 끝내 이루지못해 결국 「반쪽올림픽」으로 치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점은 상당한 심각성을 안고있다.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또한 공동개최로 치뤄야 한다는 대다수민중의 염원을 무시한채 매스컴을 통해 세계만방에 남과 북이 분단국임을 인식시켜 통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올림픽을 이용해 공산권국가인 중국이나 소련등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까지는 좋겠으나 이를 이용해 남북한교차승인을통한 분단의 고착화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번 올림픽이 끝난 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수도 있다. 또한 이것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이루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긴하다. 그것은 8·15광복절 경축식에서 「정상회담」의 무조건적 개최요구에 대해, 북한정권수립 40개년 기념일인「9·9」절에 북한의 김일성은 비록 연방제 통일방식에 근거한 통일논의를 주요의제로 한 경우 평양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는 표명을 해왔기때문이다. 또한 이에대해 현정권은 올림픽을 북쪽에서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제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표명에 따라 정상회담의 실현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것이다. 만약 예상대로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서 그 결과까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어 내리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다만 남북간의 정상회담이든, 국회회담이든 간에 남북교류에 임함에 있어 정략적인 계산보다 민족의 비극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촛점을 맞춘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민족의 앞날이 밝아질수 있는 것이다.

취업대책 시급하다

이제 대학의 캠퍼스도 취업시즌을 맞고 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학생들은 학생들 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취업대책을 놓고 고뇌를 해 오고 있다.

학생들은 직장의 선택문제가 바로 자신의 생애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갈등과 방황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률을 때때로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회적 현실인식때문에 취업대책을 강력히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직업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개인의 고유한 권리에 속한다. 직업은 사회적 지위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므로 개인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의 충족과 적합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첫출발을 의미하는 취업선택은 개인적 조건의 충족만을 고집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다.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시대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있고 또 기능면에서도 전문화와 국제화 그리고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기업체들은 경영체제나 조직면및 전략면에서 특유한 개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채용의 조건으로 이에 걸맞는 능동적인 인재를 그 대상으로 삼고있다. 여기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것이 바로 정확한 취업정보의 획득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것이 아닌 기업체별의 특성을 포용하고 있는 정보인 것이다.

우리 대학도 매년 졸업생의 60%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있다. 매년 취업대상자 가운데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 올해도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취업경쟁률, 기업의 전산·기계화 추세및 임금상승요인의 압박등으로 인하여 취업전선이 그리 좋은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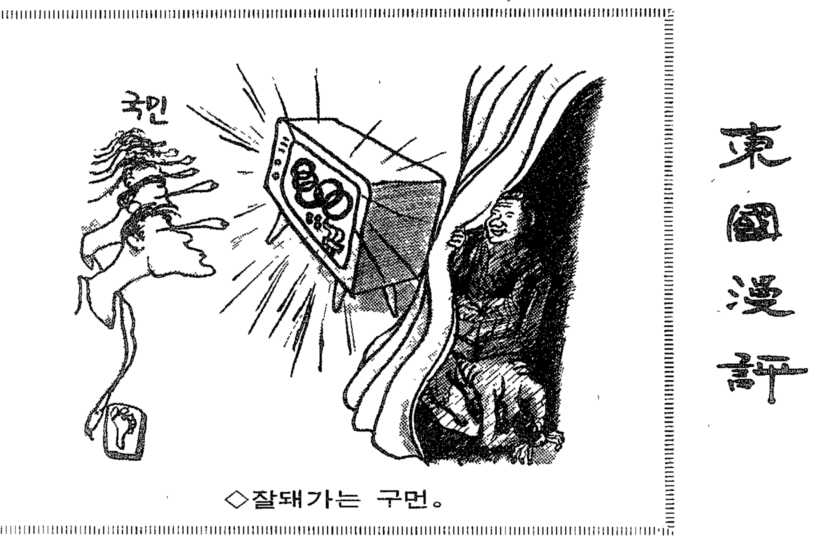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취업희망자는 학력향상에 전력해야 할 것이며, 학교당국은 보다 진취적인 취업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가장 필요한 취업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 적기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취업지도위원회, 취업추진위원회 그리고 취업담당부서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기업별 동문회, 관련된 기업체와 인사등을 초빙하여 단순한 기업선전적 차원을 넘어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취업은 대학이미지의 사활적 요소임을 재인식하여 범동국 취업추진체의 구성을 제창한다.

東國漫評



◇잘돼가는 구먼.

"올림픽 때문에 정치휴전이라니"

時事論壇

「비정치」강조하는 정치적 의도 파악해야

공동대회 무산에서 반민족적 측면 확인

도둑처럼 소리소문 없이 올림픽을 유치해왔던 이래, 이 땅의 정치 권력은 7년 동안의 세월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있어야 하고, 또한 올림픽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래서 올림픽만 조용하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인 양 선전해왔던 권력측의 올림픽에 대한 입장이야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야 남의 집 잔치 구경하는 듯한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야 그 속성을 한번 쯤은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야만 올림픽이 우리의 것이 더욱이 권력과 몇몇 허수아비의 장난질로 그치지 않게 할 책임도 우리 국민들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의 완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며 올림픽 허수아비들의 미몽을 깨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올림픽 유치이래 「올림픽」문제는 정치권력 속에서도 어쩌면 딜레머로 작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파국」을 두려워하기는 오히려 권력측이 심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그 속셈이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올림픽이 정치성을 띠고 있고, 오히려 그런 만큼 더욱 정치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우리의 입장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끌어나가고자 한다.

근대올림픽의 개최이래 올림픽이 제자리를 잡게 된건 적어도 1차세계대전 이후로 보아야할것이고, 그것도 히틀러의 베를린올림픽을 계기로 정치적 이용의 냄새를 한껏 피워왔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올림픽의 상업성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세계 체제적 정치성의 발휘를 놓고볼 때, 올림픽은 그 역할을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다해왔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먼저 근대올림픽의 시작 자체가 서구중심적으로된 것을 두고 이러저러한 얘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제국주의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의 제국주의국가를 중심으로 올림픽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가」에 의의를 둔다는 올림픽정신 자체가 초창기에는 특권국가들의 얘기일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경기종목 자체가 게르만족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경기의 개최 또는 경기자체의 숙련문제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을수 없었던 것도 그 고유한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일 터이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치성 문제가 최고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히틀러의 올림픽을 두고 볼때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세계체제화하고 제국주의의 분할전쟁이 시작되고 있던 와중에서야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의 속성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자 하는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차대전 이후의 올림픽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멕시코올림픽은 개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 속에서 진행되었으니 말할 나위도없다. 그 대회의 국내정치적 의도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런 올림픽의 본래적 속성을 장황하게 늘어놓은것은 다른 의도에서가 「올림픽」이라는 어쩌면 「평화」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 괴물의 본래적인「정치성」을 바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정치성을 뒤덮어두고 「비정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의도를 알아야 하며 그런 뜻에서 그「정치성」을 우리들은 최대한으로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그리고 현하 진행중인 서울올림픽을 두고 볼때 우리는 정치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눈먼장님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것을 잘 알아야 할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유치이래의 7년동안을 돌이켜보면 올림픽은 그야말로 「도깨비방망이」인양 행세해 왔다. 서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민족임을 강조하기 위해, 잘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의 판자촌은 아예 없어져야 할 곳이었고, 길거리의 노점상은 아예 거리에서 사라져야 했다. 그래서 7년동안 올림픽의 예행연습만 해온 셈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여일 동안 횃불을 나르며 전국을 들쑤시고 다녔다. 올림픽의 개최지는 한국이 아니고 엄연히 서울인데 전국의 국민들은 서울시민임을 걸으로만 그것도, 강요당해 온 셈이다. 농민·노동자들이 하나도 없는 「국민」들이 횃불을 나른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꼬치꼬치 캐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고, 그이 올림픽의 반민중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올림픽의 「반민족적」인 측면을 공동대회의 무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야 할 우리의 올림픽에서의 과제였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는 「공동올림픽」문제를 「우리의」 정치적 측면에서 따져본 적이 있었던가.

올림픽이 특히 제3세계권에서 반민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있음을 상기하는것은 지금은 별 뜻이 없다. 지금은 단지 그러한 문제의 본래적 속성을 다시한번 곰곰히 따져보고, 우리나름대로 올림픽을 정리해나가는 일만이 남았을 뿐이다.

여기에서 부르조아정당들의 정치휴전을 그것도 법까지 정해서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제도정치의 밀월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가장 반민중적인 가장 반민족적인 올림픽을 가장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권력측의 속성에 다시 부르조아정당이 일부를 보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문화올림픽 운운하며, 몇몇 유한계급의 적자들만이 그 고상함을 뽐내며, 노점상들은 거리에서 쫓겨나고,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정치휴전법」에 따라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며, 제도정치권에서의 정치쟁점들조차 아예 남모르는 일이 되어 버린 지금, 우리는 이 「정치올림픽」을 아니 올림픽의 정치성을 거꾸로 투시해 보아야만 한다.

우리들은 올림픽을 치르면서, 가장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들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문제로 쟁취해 내어야 하며, 제도정치권의 가장 추악한 측면들을 들추어내어야 한다.

우리의 「민족」과 「민중」은 어디로 가고, 올림픽만 남았는가.

윤 해 동 〈역사문제연구소 총무부장〉

「평화」라는 껍질을 뒤집어쓴 괴물의 본래적인 정치성을 바로 보아야하고 정치성을 뒤덮어두고 「비정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의도를 알아야한다.

재정증가는 장학지급 확대로

―등록금 자율화조치를 보고

인상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가 관건

대학이란 흔히 누구나가 이야기 하듯이 인류에게 봉사할 학문을 연구하는 진리탐구의 장이요, 사람이 사람됨으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나아가는 지성의 상아탑(象牙塔)으로서 규정지워 진다.

또한 대학은 농촌·도시·빈부 격차에 관계없이 世人들에게는 기능적 지식인의 양성소로도 인식 되어져 왔다. 대학만 나오면 모든 앞으로의 사회 생활은 순탄할 것이라 믿었으며 특히 농촌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생각이 팽배해 어떤수를 쓰더라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 했다. 이렇듯 대학은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과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요 희망이요, 이상이었다.

이러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꿈과 진취적 기상을 가져야할 고교시절을 「절수라는 책」과 씨름해 어려운 시험 지옥을 통과하여 많지 않은 선택받은 인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잠시, 엄청난 액수의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합격의 기쁨은 곧바로 돈에 대한 부담과 고통으로 바뀌어 부모님들의 얼굴과 가슴에는 주름살과 아픔이 생기게 된다.

「대학은 곧 절망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향학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가 그렇듯이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자식이 대학을 무사히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한다. 특히 (집안이 부유한 경우에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뽀족히 등록금 마련의 출처가 있는것도 아니기에 빚을 내든가 집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기르던 소를 팔아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게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지만 60·70년대의 대학을 부모님의 한숨과 눈물이 배어 있는 「우골탑」(牛骨塔)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지난 9월3일자 모일간신문에 「문교부는 지난 9월2일 사립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등록금과 국립 대학의 기성 회비 책정(입학금·수업료제외)을 각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대학등록금 자율화 방안」을 확정 89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골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발표에 의하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등록금이 10%이상이 인상될 것이라 한다. 또한 학과 특성에 따른 교육비의 차이를 등록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가 많이 드는 의·치대, 공학, 예능, 약학 계열은 약 30% 선까지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의 폭만큼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부담과 근심은 커진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하숙비또한 인상되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용돈의 액수도 높아졌다. (예를들면 대학생의 한달 용돈이 7만원, 하숙비를 12만원으로 상정했을때 6개월동안 지출되는 돈이 대략 1백60만원이 된다는 결론이다. 부모님의 한달 수입을 50만원으로 잡았을때 거의 반이 학비로 나간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록금의 자율책정은 원칙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문교부에서 8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확정·발표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기정 사실로 놓고 인상에 따른 우리에게 오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등록금의 인상은 재단측이나 학교측에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의 장학금수혜확대로 되어져야 한다. 즉 가사곤란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의 확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구시설의 확대, 교수의 충원 작업이다. 증가된 재원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제반 시설과 도서, 보다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 학문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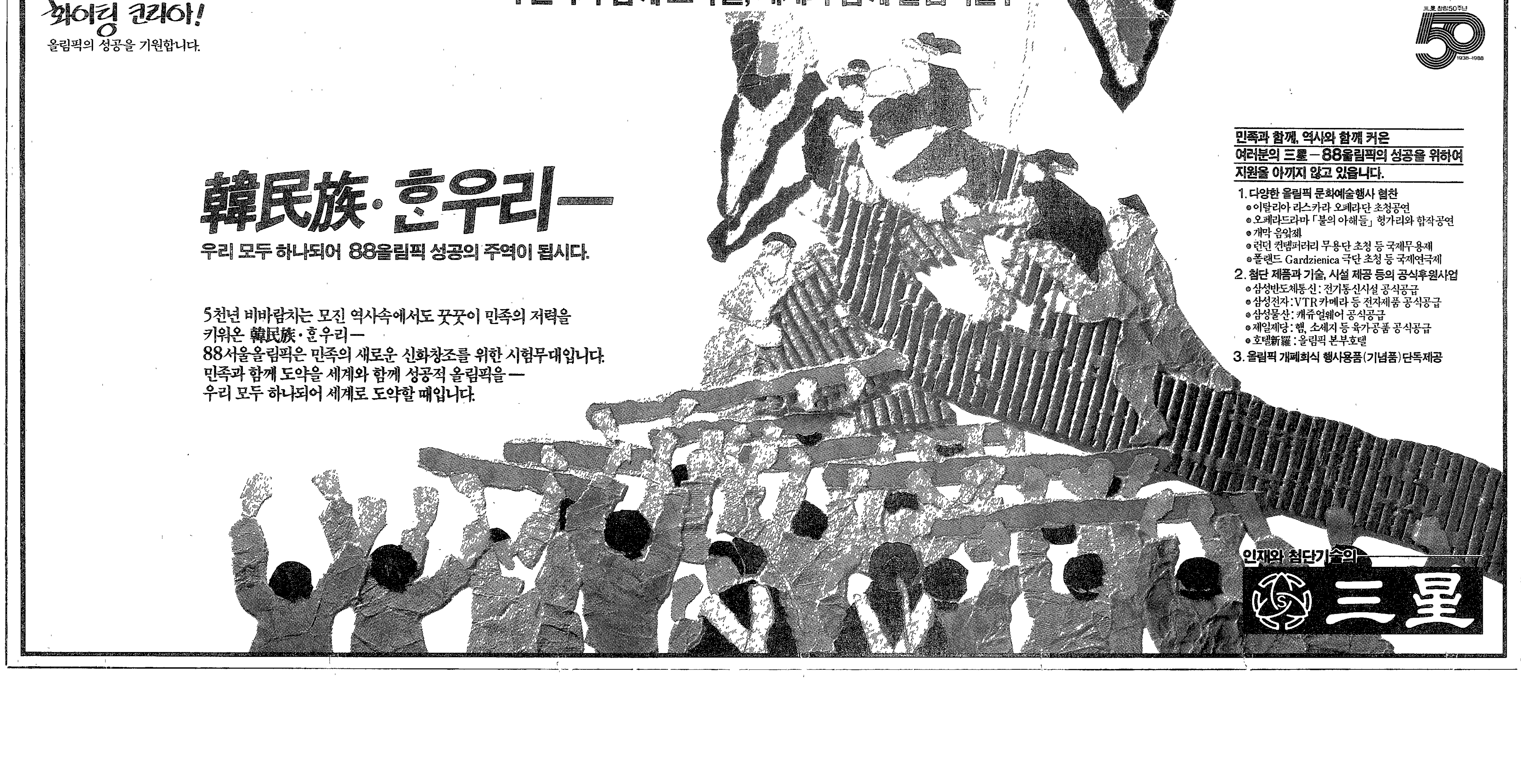
세째로 재단의 재산 체계를 수익 사업 체계로 전화하여 재단의 재원을 학교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변화가 있을때 만이 등록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제5공화국의 권력형 부정비리의 결과로서 소값이 그야말로 개값이 되었다. 60·70년대는 그나마 소라도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방법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를 팔더라도 등록금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대통령선거, 총선, 올림픽등 너무나 많은 돈을 집권연장을 위해 풀어놓았기에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등 경제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노동자가 하루 13시간내지 14시간의 긴노동을 여섯달을 쉼없이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휴지조각처럼 내고 대학생이란 명함 하나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나의 생활을 반성하며 부모님의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글을 맺을까 한다.

최 동 학 〈불교대·인도철학과〉



○……전통사찰은 한국고유의 얼과 숨결이 숨쉬……○
○……는 곳이라 할수있다. 그런데 무분별한 관광……○
○……지 개발로인해 부작용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사찰주변의 자……○
○……연보존과 관광개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
○……서 살펴본다. <편집자 註>……○

"관광개발로 사찰이 병들고 있다"

무리한 관광개발로 사원의 황폐화 초래

전통적인 공간구성은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찾아

관광지의 개발은 주변경관의 보호차원에서 추진돼야

孫 昌 求
<자연과학대·생태조경학>

I、序 論

선조들의 얼과 숨결이 담겨져있는 우리의 佛敎寺刹은 자연경관이 수려한곳에 입지하고 있어 한국고유의 문화유적과 錦繡江山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곳이다.

또한 이들 古刹은 독특한 사상적 배경과 공간구성 기법에 의하여 조영되었기 때문에、한국인의 傳統的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살아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古刹地域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힘입은 소득향상과 여가활동의 증대로 대규모위락단지로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개발행위는、우리의 선조들이 간직하여왔던 전통적 자연관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극히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있다.

이와같은 觀光地 개발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비난의 소리가 끊임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성스러워야할 우리의 [illegible]도에 전념해야할 승려 [illegible]대상으로 전락하고 유 [illegible]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illegible] 측면만을 강조하고 사 [illegible] 환경조건을 도외시하는 [illegible]은 古刹이 지닌 유구 [illegible]적 전통과 자연환경적 [illegible] 제대로 반영되지 못 [illegible] 아니라、오히려 보호라 [illegible]에서 공간화되고 비 [illegible] 불합리화된 환경개조가 이루어지게 될으로 돌이킬수 없는 과오라 하겠다.

그러므로 사찰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은 개발에 앞서 한국불교와 사찰조영에 대한 사상적 배경및 공간구성 기법에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寺刹造營의 思想的 背景

가、土俗信仰

고대인들은 우주의 만물이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의영혼불멸을 믿었다. 산이나 강、수목같은 자연들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여 섬기기도 하였다.

이들중에서 천신이 강림하는 곳으로 산을 생각하여 산악신앙과 산신사상이、하늘신을 구상화한 태양숭배신앙이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自然崇拜 信仰은 降神능력을 보유한 呪術師를 필요로 하게 되어 무속신앙으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민간에게 전승되어 종교적 의식을 갖추게되고 민간신앙중에서 확고한 신앙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들 무속신앙은 불교、유교등 외래종교가 유입되기 오래전부터 한민족의 신앙기반이되어왔다.

무속의 祭禮儀式은 일정한 구조가 있어 祭天儀、農耕儀禮를 통한 歌舞飮食으로 神人合一을 모색하였고 사람들은 心靈과 교제하여 새로운 축복을 창조할 수 있었다.

고대의 제례는 신화적 모델의 반복행위였으며 그 모델은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민중의 신앙으로 견지된 채 불교를 받아들여 토착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토속신앙의 영향은 한국 사찰조영의 三聖閣 배치에서 찾아볼수가있다. 이는 道敎的 七星、巫敎的인 山神、佛敎的인 獨聖을 한데 묶은 巫佛仙 3敎綜合의 상징으로서 곧 민중불교와 외래종교의 신격을 채용하여 재래와 토착적인 三神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三聖에대한 기도 내용이 수명、부귀、복전등 토속신앙의 중심가치 체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것을 볼수있다.

이것은 결국 三神信仰의 巫佛仙的 표현을 채용한것이 三聖이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자연숭배신앙인 영지신앙은 후에 법화경 신앙과 결합하여 경승지에 寺刹을 조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나、陰陽五行論

陰陽五行論은 동양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우주생성과 우주운동의 법칙을 구명하는 思想으로서 古代中國 戰國時代 중엽으로부터 발달되면서 老子의 一元論的 철학사상의 영향을 받고 漢代에 이르러 儒敎와 道家들의 사상적 논리 기초가 되었다.

古代 문명국의 천문학은 日月星辰의 운행을 비롯한 자연현상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보지않고 인간생활의 吉凶禍福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동시에 逆으로 天子의 治政에、善惡이 日月星辰에 반영된다는 점성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주생성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발전한 것이다. 우주본원인 태일의 世界에서는 陰陽雨氣가 있어 가벼운 것은 天이 되고、무거운 것은 地가 되어 陽氣가 日이 되고 陰氣가 月이 된다.

天은 圓으로 地는 方形으로 표시하였다. 이와같은 사상에서、太一陰陽의 철학이 수학으로 展開된 것이 易學의 理論이며 천문학적 방면으로 발전한 것이 陰陽思想이다.

五行論은 만물을 木、火、土、金、水의 5요소로 본 일종의 다원론으로서 본래 二元論인 陰陽說과는 무관한 것인데 春秋戰國時代를 거쳐 漢初에 이르는 동안 완전히 陰陽五行이 결합하여 木火는 양、金水는 음에 속하며 土는 그 중간에 있다고 하여 이들의 소장에 의하여 天地의 變異、災殃、人事의 길흉등 전우주의 제현상을 구명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陰陽五行論은 陰陽의 二氣가 인간의 운·불운등 모든 운명의 기원을 지배하며 五行의 相生과 相克의 원리는 운명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사상의 기본적인 사고관념이 된 것이다.

다、風水地理 思想

풍수지리 사상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하여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中國과 韓國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相地技術學이다. 이것은 후에 효의 관념이나 무속信仰과 결합되어 이기적인 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관으로 표출되었다.

풍수사상의 구성은 山、水、方位、사람의 4요소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방법으로는 看龍法、藏風法、得水法、定穴法 坐向論、形局論 등이 있다.

①看龍法：風水에 내포되어있는 모든 원리가 가시적 실체로서 표출되는 事象을 山、風水용어로 龍이라 하며 그 용맥의 흐름이 좋고 나쁨을 祖山으로부터 穴場까지 나타난것이고 脈은 龍속에 숨어있는 氣運을 말한다.

龍은 祖山이라 불리우는 名山으로부터 시작된 그 山의 본줄기와 곁가지가 면면히 내려온 것으로서 龍脈의 형세로 지형의 길흉을 판간케 되는 것이다. 결국 調和、均衡속에서도 변화 생기를 아울러 갖춘 모양의 山이 吉한 용으로 간주되어 진다.

②藏風法：明堂을 잡기 위하여 주변의 地形·地勢를 이해한는 방법을 말한다. 즉、주변의 地形과地勢를 이용하여 바람을 막아 地中에서 발생하는 生氣를 包容할수 있는 定穴을 찾는 방법이다.

③得水法：風水에서 山은 陰이요 水는 陽으로서 陰陽論的으로 볼때 山水가 서로 調和를 이루어야 龍穴이 氣를 발휘할수 있게 된다. 陰陽二氣에 의한 明山論에서는 二氣가 融結해야 山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니 山水가 相補해야 陰陽이 和하고 和해야 冲氣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得水는 陰陽和合의 必要不可缺한 존재로 藏風보다 더욱 重要한 要素로 認識되고 있다.

④定穴法：穴이란 풍수에서 요체가 되는 장소이다. 穴은 陰宅의 경우 시신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생기를 얻을수 있는 곳이며 陽基의 경우 거주자가 실제 삶의 대부분을 엮어 살게 되는 곳으로서 인체의 經穴에 비유되고 있다. 經穴이란 經絡에 존재하는 孔穴이란 뜻으로 생리적 또는 병리적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特定한 위치를 말한다.

이는 성령술에서 병인을 찾아 치료케하는 방법으로 風水에서 定穴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⑤坐向論：坐向論은 方位에 관계된 術法으로서 좌향은 혈에서의 위치로 본 方位 즉、혈의 뒷쪽 등진 方位를 坐로、그리고 穴의 正의 정면을 향으로 하여 나타낸다.

예컨대 북쪽에 來龍을 등지고 남쪽에 案山을 바라본는 穴處의 坐向은 子(북)坐、午(남)向이라하여 穴處의 坐向뿐만아니라 山과 水의 흐름 방향등 방위 전반에 관련된다.

풍수의 기본이 음양오행론에 입각한 천문지리 연구에서 비롯되었음으로 이에 근본이 되는 방위의 문제는 풍수의 본질론에 가장 根接된 논리라 하겠다.

⑥形局論：이는 풍수의 최후의 단계로서 주로 지세의 외관에 의하여 그感應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穴의 형체와 역량과 기세를 어떠한 물체의 현상에서 유추하여 표현한다.

이는 우주만물 萬象은 有理·有氣하며 有象하기 때문에 외형물체에는 그 형상에 상응한 기상과 기운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保局地勢와 山穴形體에 따라 이에 송응되는 精氣가 그 땅에 凝聚하여 나타난다고 본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풍수의 본질이론과 다소 乘離된 내용으로 후대에 변질되어 나타낸 논리이다.

이와같이 풍수지리설에서는 地脈을 龍이라하고 이 지맥의 生氣를 꽃피운 자리를 穴이라 하며 이 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산、구릉을 砂라 한다.

또한 이들의 調合에 의하여 四方이 定해지는데 이는 靑龍、白虎、朱雀、玄武로서 調合形勢에 따라 생기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길흉이 정하여 진다.

이러한 風水地理說을 크게 선양한 것은 高麗時代의 僧侶 道詵으로서 그는 불교의 善根功德思想에다 陰陽五行論 등을 결합해서 이를 신봉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지형이나 지세는 국가나 개인의 吉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리에는 旺衰旺이 있고 順逆이있는데 旺處、順處를 선정、즉 명당을 택하여 陽宅(住宅)이나 陰宅(墳墓)을 지으면 국가나 개인 이복을 누릴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반면에 衰處나 逆處에는 裨補寺刹을 세워서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선의 풍수지리설은 高麗太祖의 訓要十條에 의하여 더욱 빛을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風水地理에 의하여 선택된 자연적 지형의 단순한 의미의 세속적 공간이 아니라 원형적 回歸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

이러한 風水思想은 佛敎思想과는 生死觀에서 相容될수 없는 일면이 있으나 불교가 전통적 在來信仰에다 이를 성공적으로 적응시켜 토착화하였다. 따라서 風水說은 聖地로서 사찰형성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풍수신앙에 의해 景觀上에 나타난 것으로 신라말기 이후 탑이나 浮屠의 설치장소가 풍수설의 名局에 해당되는 것에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건축공간배치는 위치 선택에서부터 자연을 존중하였고 자연에 대치하는 방향으로 건축이 시도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空間構成

한국의 자연지세는 아름다운 산이 많고 강물이 맑으며 4계절이 분명하여서 청명한 回氣를 가지고 있어 아름다움을 즐기고 자연에 순응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습속이 釀成되어 왔으며 이는 建築文化에 있어서도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조화를 이루고자 한는 特性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韓國의 建築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장대하지 않는 까닭에 建築의 外觀이 보는 사람에게 중압감을 주는예가 比較的 적다. 따라서 대부분 建物이 人間的 척도로 가름할 수 있는 크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外觀이 아담하고 친근감이간다.

또한 韓國의 建築 空間 構成은 위치선택에서부터 자연을 존중하며 자연의 지세에잘 적응、조화하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세를 제압하고 자연과대항、경쟁하는 방향으로 건축이 시도된 예는 거의 찾아 볼수 없다.

특히、배치계획시 전술한 바와 같이 풍수지리사상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자연지세와환경조건을 잘 분석 활용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복리를 도모하고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기본경향은 현대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설계원리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같이 無技巧의 自然美를 나타내도록 하였음으로 순박한 친근감을 주고있다. 그러므로建築全體、配置는 지형에 따라 非對稱的인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寺刹의 공간구성은 配置形式이 어떤 질서의 原則에 準하지않고 자유스러운 잡다한 配置로 구성된 것 같으나、現存하는 사찰을實測調査한 결과로는 엄연한 配置原則에 의하여 空間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空間構成의 類型은 塔의 배치에 따라 一塔式、二塔式、無塔式、立地條件에 따라 平地型丘陵型、山地型、配置軸線의 性質에 따라 中心軸型、直交型、自由型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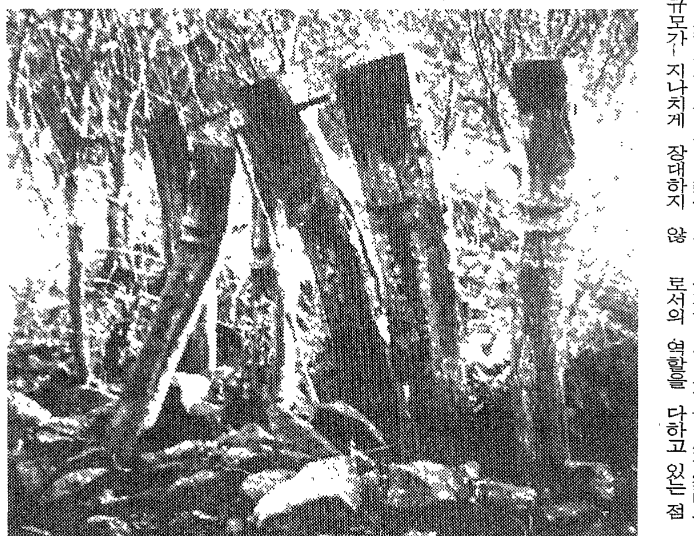
寺刹의 配置는 여러가지 機能을 가진 건조물의 配列方法에 一定한 秩序를 견지하고 있으나 必要에 따라서는 省略기도 하며 韓國建築 順天思想에 의거 山地伽藍 配置로 遷移하면서 寺刹領域은 地形面積에 正比例하고 있다.

또한 山地伽藍으로 되면서도 中心伽藍은 整然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서도 中心部의 空間處理는 뛰어나 正方形의 中庭을 유지하면서 참다운 外部空間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은 寺刹規模의 比例에 따라 생긴 融通性있는 空間構成 처리에 의한 것이다.

중심건물群은 4개 건물로 구성되고 이들의 고저비례는 大雄殿의 크기에 정비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태양식면에서도 主從의 관계를 엄수하여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중심건물의 배치형태를벗어난 주변 建物群도 일정한 초점을 향하여 배치되었다.

이와같이 사찰의 공간구성은 한국인의 선천적 재능의 다양성을 발휘하여 환경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대립적 표현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보이고 있으며 임기응변、자유자재로운 조형태도로 배치계획에 임하였다.



토속신앙과 관련된 불교문화재가 전국관광지에 산재하고 있다。

4、사찰 환경보전의 필요성

이렇듯 우리나라의 불교사찰은 동양적자연존중사상과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고 시각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람을 정치하여 왔다.

이와같은 곳에 입지한 불교사찰은 한민족의 문화민족 긍지에 막중한 영향을 끼쳐온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또한、우리국토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산림은 조선말기외세의 이권침탈의 주요대상이 되어 왔으며 해방후 연료의 조달을 위한 국민들의 무분별한 벌채행위、6·25사변의 전화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寺刹周邊의 森林만은 승려들이 사찰보호차원에서 적극 수호하여 사찰주변의 森林 보호상태는 양호한 실정이다. 사찰의 풍치경관림은 전국풍치림 총면적 93,342ha중 寺刹林이 24,809ha로서 전체면적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사찰림의 대부분이 가장 秀麗한 風致林을 형성하고 있어 국토의 주요시각 자원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오늘날의 사찰지역은 優秀한 森林景觀을 유지하면서 관광체양의 명소로 개발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급증된 관광수요의 충족은 이 땅의 수려한 景勝地를 마구 훼손하기에 이르렀고 기능적인 서구식 공원개발의 수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더우기 自然風致林의 保護및 적정한 이용의 圖謀를 목적으로 하는 自然公園法에의한 국립공원의 개발은 여기에 立地한 많은 寺刹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寺院의 외형만을 보존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에만 치중하였고、살아움직이는 宗敎生活의 현장이라는 眞面目을 度外視함으로써 寺刹을 서서히 枯死시켜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오랜 사상인 自然崇拜思想과 여기에서 비롯된 자연보호정신에도 위배되는 行爲인 것이다.

그러므로、우리의 자연관과 문화적 전통의 우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佛敎文化遺蹟은 바로 우리의 얼과 숨결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國寶이기에 西歐的 관광개발기법을 그대로 모방및 도입하여 적용하는것은 排除되어야 하며、우리의 自然觀과 民族精神이 表出되는 國民 敎化場및 國家 弘報場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POSCO메세지 면학편

그물을 짜는 마음으로…

『臨淵羡魚 不如 退而結網』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탐내는것 보다는,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나자신의 부족함이나 현실의 불만족스러움을 한탄하고 비판할 時間이 있다면, 그 동안에 부족한 것을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보다 나은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實力을 기르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大學時節, 두번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時間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人生行路를 좌우하게 될 그 時間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읍니다.

結實의 가을은 또다시 우리곁에 다가와 있읍니다.
우리모두 滿船의 꿈을 그리며 그물을 짜는 漁夫의 마음으로 돌아가, 오늘보다 나은 來日을 준비하는 일에 그 時間을 투자하지 않으시렵니까?

浦項製鐵은 다음 世代의 행복과 다음 世紀의 번영을 약속하는 國民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LTD.

기획시리즈 세번째…한·미 행정협정의 문제를 진단하며

미군기지…식민통치의 발판

—— 정치, 군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1、서 론

지난번 글에 이어 본고에서는 한미행정협정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한·미간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무릇, 한 나라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각종 권리와 혜택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행정협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한미관계가 대등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협정이나 조약이 주권국가간에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협정이 주권국가로서의 응당한 권리이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실질적인 권리를 미국에 양보하고 있으며 협정조문은 형식화되고 있다. 마치 신식민지국가가 형식상의 국가주권은 있지만 실제적인 주권을 제국주의가 틀어 쥐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더구나 군사관계는 양국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국가권력의 핵심적인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관계 조약인「한미행정협정」의 정치·군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한·미간의 군사관계 나아가 한미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첩경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행정협정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2、현대판「租借地」—미군기지

주한미군은 현재 1백20군데의 기지와 1만여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의 총면적은 3백㎢(약9천만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된다. 주한미군기지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시설과 구역의 정의·공여와 반환·보안조치·유지와 경비등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제5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의해〈병영〉을 설치한 미군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군인및 군속·가족의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으며(제22조) 군대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자 반입시 통관과 관세가 면제되어 있으며, 과세가 면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일제시대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다.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 맨처음 개항을 요구하고, 이후 일정한 지역(부산 포항등)을 할애받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 여기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을 흔히들「조차지」라고 부른다. 일본은 조선에 조차지를 설치하고 치외법권의 행사, 관세와 과세의 면제라는 특권을 누렸으며, 이는 비단 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필리핀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을 침략한 제국주의국가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각이다. 조차를 설치한 제국주의국가들은 이를 토대로 사회전반에 촉수를 뻗쳐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회의 기간산업을 장악하는 한편 마침내 국가주권을 박탈한다. 그리고 총독부를 내세워 식민통치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주의국가들의 과거 행각이 현재 한·미간에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비록 현상적인 형태와 절차는 상이하지만 본질적으로 너무 흡사한 점이 많다.『상호적 합의에 의해 합중국의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진주시킬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바로「개항」을요구한 것과 다름 없으며,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의「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은「조차지」설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의「형사재판권」「관세 및 통관」「과세」「공익사업과 용역」등의 조항은 조차지에서 미군이 누리는 각종 특혜와 권리를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일본이「조차지」를 통해 전 조선을 집어삼켰듯이 미국 역시, 현대판 조차지인 미군기지를 설치한 이후「군작전권」을 장악하여 한국군을 자신의 예하부대로 통합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군출신인사를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권력의 심장부에 앉혀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미군기지가 식민통치의 발판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서 바로 드러나는데 5·16이나 5·17 군사쿠데타를 미8군사령부에서 관계했다는 사실이다. 군작전권을 미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미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데타에 대한 미대사관과 미군사령부의 상이한 입장은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치는 간단하다. 미국으로서는 미군주둔을 달갑게 여기고 각종의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정권을 내세우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정치권력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반대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간접적인 군사적개입을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이를 위한 기본 물리력이 될 것이다.

미군 사용시설…서울 면적의 절반

한국의 기지화·병참화·국군의 용병화가 문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과거 행각이 현재 한미간에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3、한국은 미국의 병참기지

흔히들 남한을 미국의「대소전진기지」라고 부른다. 한미관계의 핵심을 지적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왠지 생생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역시 과거 일제시대와 비교하면 보다 이해가 쉽지 않을까?

우리는 과거 일본이 대륙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초기에는 자본주의로의 자주적 발전을 억압했던 일제는 1930년대들어 대륙침략전쟁을 수행하게되자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위해 조선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 대신그 성과물을 일본이 독차지하였으며그 법적장치가 인적·물적자원 총동원령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러한 현상이 한국 현대사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 정희는「근대화」라는 이름하에 5차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입안, 실행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경제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반대로 말한다면, 미국은 박 정희를 이 승만의 후계자로 내세운 다음, 경제원조를 통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게 한것이다. 그리하여 실행된 제1·2차 경제개발 계획은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에 그 역점을 둔다.

그런데 미국은 사회간접자본을 일제와 마찬가지로 병참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6조에 따르면, 미군은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각종「공익사업과 용역」을 사용범위의 제한없이,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싼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과 용역이란 사회간접자본인데, 협정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공익사업과 용역이란 수도·전기·가스·스팀·전열·전등·동력·수송·통신을 말하며 다만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협정의 부속문서인「합의의사록」제6조 3항에서「비상시에 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에 한국의 기간산업을 송두리째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는 국내법에 의해서도 밑받침되고 있는데 비상시에「국내의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자원관리법(1984년도에 통과)이 바로 그것이다.

제6조에 의해 공익사업과 용역, 을 전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미군은 제15조「노무조항」을 통해 한국인의 노무인력을 징발할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마치 일제가 징용을 통해 한국인들을 강제노역시켰듯이 미군 역시 비상시에는 한국의 인력을 징발할 수 있다.

4、맺 음 말

이상 두가지 예를 들어 압축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군사관계의 자료가「안보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한·미관계의 실상을 생각해 볼때, 이러한 추정이 단순한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인식해왔던 많은 사실들을 이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면화·대중화·일상화를 요구받는 현재,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일 것이다.

미국은 남한을 자신의 식민지로 유지하는데 있어 다음의 세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국토의 기지화」「한국군의 용병화」「경제의 병참화」이다. 한국군의 용병화는 군작전권의 장악을 통해 국토의 기지화와 경제의 병참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다. 한미경제협정등 각종의 협정이 무수히 있으며 자원관리법, 관세법, 전파관리법등 행정협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국내법이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정치·군사적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제관계속에서 유기적으로 고찰할 때만 올바르게 이해될수 있을 것이다.

김 향 미 〈자유기고가〉

鹿野苑

秋夕과 追惜

▲실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다. 올해도 추석이 오긴 올 모양인데…예로부터 팔월「가위」를 큰 명절로 보낸다하여「한가위」곧 추석이라 했는데, 추석은 신라의 가배로부터 유래해 햅쌀로 송편을 빚어 차례를 지내고 벌초, 성묘등을 행하는 날이다. 그런 성스럽고경건한 날 이걸 어떡하나 ▲여느때같으면 바가지 쎄일(?)이다 뭐다해서 백화점에서 유혹하는 선물바람에 뭇사람들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지면서 고향 갈 차표를 예매하느라 부산한 모습이었건만, 올 추석은 시큰둥해진다. 흔히 정부에서 떠벌이는「민족의대제전」인가,「망국의대제전」인가때문에 감도따고 대추도따서조상님께 올려야 할 날에「노란 구리쇠」를 따는 날로 뒤범벅이 되겠으니 조상님께 뵐 면목도없고 도리도 아닌 것 같아 황송을 금할길없다. ▲이 한심한 것들이 농민은 오곡백과를 거두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씨뻘건 불방망이를 들고 마중 나오라 들볶더니「남의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뛰박질과춤판이 다 뭔가. 더구나 빈민들은 변변한 텔레비전 하나 없고, 언제 손바닥만한 판잣집이 철거당할지 몰라 마음 놓고 구경할 수도없는데 입장권은 왜이리 비싸 용왕님 뵈러가는 거북이 마음만큼이나 무겁게 하는가. 또 기왕 놀려면 가만히 놀일이지 어쩌자고 피흘려 짜낸 국민의 세금을 연일 밤하늘에 쏟아 붓는가. 그저 손님이라면 뭐든지 다 내줘「키크고 코큰」거시기 녀석들이『꼬레아 싸람은 뭐든지 공짜로 준다』며 버르장머리 없게 키웠는가. ▲그래도 마음이 넓은 어느「시골사람들」은 올림삐꾸를 귀경간다고 계를 조직해서 수 년전부터 푼푼이 돈을 모아 왔다나. 겨우 목돈마련으로 입장권 하나 사려 큰 맘 먹고 있었는데,「나으리」와「사장님」부터 골라주고 나선 추첨을 한다고 했으니 시골사람에게는 흔한 기념품 하나 당첨될리 만무하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도 팔월 한가위에는「부자」라 했다는데…올 추석은 누구나 신선이 되자. 〈池〉

時論

극우적 발상의 출현

이른바「극우적 발상」이라 일컬어지는 현직 김총무처장관의 국체제수호발언을 비롯 일련의 극우적 사건들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면서 사회적 파문을 야기시키고 있다. 민정당대표의 내각제 발언, 총무처장관의 망언, 중앙경제 오홍근부장 테러사건, 현대사회연구소·정신문화원등 정부연구기관들의 극우 이론개발, 유지광씨의「한일우익연맹」결성등의 출현은 단순한 우익세력의 자기 소리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데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주목된다.

특히 현정권은『좌경세력의 확산에 따른 보수적 논리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산하 유기관들과 협력, 빠른 시일안에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정신문화원 양동안교수는「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통해『정부나 언론이 좌경세력이라고 관대하게 불러주고 있는 이나라의 좌익은 때로는 민족세력으로, 때로는 민주세력이나 순수한 양심세력으로 위장하면서 사회각분야에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나라 민간우익세력은 좌익의 도전에 대항하여 일어서야 한다』며 강경우익론을 주장했다.

이에 동조하듯 과거「정치깡패」로 불리던 유지광씨 또한「한일 우익단체 연맹」추진의 취지에서『과격한 좌경대학생들이 세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좌경학생들에 대항할 강력한 우익단체 결성을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반공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매도하는 좌경·좌익의 지칭근거와「강력한 우익단체」운운등은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이는 민중세력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며 현 독재권력과 결탁, 반민중적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극우이론 개발은 시대적 착오"

독재 피하려는 시대착오

이러한 극우파들의 반민주적 움직임에 대해서 각계에서는「현집권세력이 민주화의 어설픈 몸짓만을 할 뿐, 이 사회를다시 암흑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음모」「반민주 반민족세력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국민들을 호도하기위한 사회전체의 좌·우 갈등 조장」「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좌경,용공매도가 더이상의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자 극우세력을 부추켜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가 독재와 외세에 대한 민주·자주·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대립의 문제로 호도」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 우익 등장의미

이러한 파문을 확산시켰던 지배세력일각의 반시대적 흐름은 여러 가능성을 시사한다.

올림픽을 이용하여 야권및 재야세력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현 지배세력의 위기와 한계를 이념적 위기로 대체하려는 정략적 의도와 그 이후의 새로운 입지를 위해 강경책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6·29이후 민주화운동의 상대적 강화와 개량국면에 따른 공권력 약화는 곧 독재의 붕괴를 예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야울러 6·10남북학생회담추진 이후 각계에 확산되기 시작한 통일논의와 과거 금기시되던 이념문제가 일기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배층의 혼란과 불만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현정권의「올림픽 이후의 대결단」은 당연한 움직임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야당에서는 사건의 주체를 일부극우세력으로 규정, 현정권의 새로운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으나 이미 올림픽기간중에 정치휴전등의 관련 공백기간을 허용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림픽이 끝나면 현 정권의 책략은 이미 시도되고 있을 것이며,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한 야권이 이에 대항하기란 어려운 상태일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이겨낼 강력한 정치세력의 필요는 당연한것이며 이를 감안할 때 진보정당의 출현은 또다른 변수와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위의 몇가지 지적된 요인으로 볼때 좌우익의 이념적 양분이나 좌우익의 필연적 대립시대가 도래했다기 보다는 누군가에의해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의혹이짙다.

흔히 매도되고있는「좌경,좌익」은 독재시대의 체제유지를 위한「매카시즘」발상에서 나온 조작일뿐이다. 따라서 이제와서「좌경, 좌익」의 논리로 과거 독재에 의해 조작된 논리가 또 다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나 친정권에 관계된 자들에 의해 매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더우기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이「민주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시대」라 한다면 구태어 구시대적 발언이나 행위는 있을수 없다.

사회의 일부 잘못된 좌경에 대한 우려는 독재에 주입된 이데올로기와 개량국면 때문이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막연한 우려나 책임회피를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할 통일과 반외세등에 그 목적을 부여해야 한다.

극우 주의자들의 망동을 경계

이제는 TV매체에서도 이념에대한 공평하고도 공정한 평가를 다루고자 노력하고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기신념을 갖는 보도매체의 움직임과 무관하지않게 그 대책방안을 놓고 고심하고있을 극우들은 민중들의 진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지나친 제스처는 내면에 또다른 작전이 있음을드러낸다. 마음만 먹으면 시대를 되돌려 놓겠다는 영뚱한 망상을 버리게 할 때이다. 과거 미제국주의와 결탁해 군사독재를 지속해온 무리들의 좌경논리에 빠지지 말고「좌익은 날로 거세어져 심각한데 우익의 목소리는 모기소리처럼 가냘프고 힘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속에 모기의 후유증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지 희 현 〈본사기획부장〉

(주)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 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IME, TOEFL, AFKN청취, Word Power, Vocabulary, L.C., 성문綜合英語, 英作文, 英語實力基礎, 英文法解, 英語構文, 日本語, 日本語會話, 中國語, Screen 英語

●韓人会話—(Side by Side 英語会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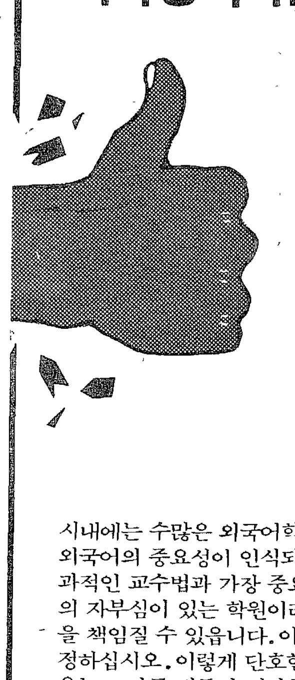
●美人会話—(New English Course 英語会話)

개강 10월 1일 수시등록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시사영어학원의 자부심!



TOEFL
VOCABULARY
LISTENING
GRAMMAR
READING
TIME
영어회화
STREAMLINE
일본어·독일어
TOEFL600(종합반)

시내에는 수많은 외국어학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가장 중요한 외국어 길잡이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학원이라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책임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사영어학원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강 :10월 4일

종로2가 종각뒤편

時事英語學院

상담대표전화 734-2442

돌아오는 여행길은 공허할 뿐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

값 3,300원

아직도 못 떠났습니까!

명상

739-2520, 738-7709

나의 모든 것을 원한다 해도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있어…

BEST SONG
BEST DANCING
BEST LOVE.

●제작 이창무 ●기획 김진관

'88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신혜수)

최민수/신혜수

青春 Musical

그녀와의 마지막 춤을 Last Dancing

추석 특선프로

24日大開封

허리우드 ●파고다공원뒤 ☎742-1481~2

東亞興行(株)作品

입시지옥 아닌 인간교육의 場으로

——고등학교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이제까지 교육의 한 주제로서 설정되었으면서도 교육운동의 외곽으로 밀려나 대상화되었던 중고교학생들의 학내 민주화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작년7월1일 시작된 파주여종고 학생들의 투쟁이 사회전반으로 파급되는것을 기점으로, 그간에 산발적으로 문제가 폭로되었던 사학문제와 교육현장 전반의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확산되는 고교학생운동

파주여종고 학생들의 6개월에 걸친 투쟁과정 중, 정화여상과 명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싸움이 다시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근래에는 동두천여상, 정읍동신여상 학생들의 재단비리척결과 학내민주화 투쟁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근 일년여의 기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교생들의 사회적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기간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근래에 보여지는 중·고교생들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미약하나마 조직적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전의 조직들이 특정한시기에 즉자적으로 만들어져 투쟁 이후에는 해체되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이미 준비되어지고 투쟁이후에도 여타의 성과물들을 집적해낸 형태로「지속적인」조직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반 투쟁의 요구내용이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재단비리 척결과 직선제 학생회 쟁취 그리고 보충수업·자율학습 폐지의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학재단비리 척결로 학생회 구심점 찾아

학생회장 직선제 관철로 자율성 확보시급

아직까지는 제반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나 해결해 나가는 형식과 내용이 일천하지만 요구내용이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운동적 흐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째는 목적의식적인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목적의식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직성과 투쟁목표에서 가지는 통일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또한 전체 학생집단이 가지는 의식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풍토 쇄신이 운동 목표

고교생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와 목표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계기와 목표는 사학재단 비리 척결이다. 파주여종고, 정화·동두천여상, 명신고 같은 경우는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근래에는 정읍의 동신여상 학생들이 운동대열에 나섰다. 동신여상의 경우는 학교 체제가 족벌화되어 장기적인 재정비리를 누적하고 있는 것과 교사들의 감시체계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일어난 경우다.

이 학교의 체제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족별 왕국화되어 있었다. 교장 김용대를 중심으로 그의 처가 이사장을, 교장의 이종사촌이 교감을, 처남이 서무과장, 딸이 재정담당, 조카가 서무직을 맡고 있고, 교무주임은 교장의 생질이다. 이러한 사학재단은 교육자본가로서 등장하게되며, 비리를 통한 영리추구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싸움을 전개하게 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인이 된다. 학생들의 싸움은 단지 재단비리의 척결에만 그 목표가 두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교육풍토의 전반적인 정상화를 요구하며, 자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인간화 투쟁이기도 하다.

고교생이 가지는 현 시기 또 하나의 투쟁목표는 보충수업·자율학습의 철폐 내지 완전 자율화이다.

올해의 보충수업·자율학습철폐투쟁은 고교생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5~6월의 시기에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자살이 문교부나 학교당국이 이야기하는대로「개인의 나약함」이나「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과중한 입시부담과 비인간적인 교육구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광주의 경우 6월 초부터 약20여개 학교가 연합하여「보충수업·자율학습 철폐를 위한 학생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불과 일주일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최소한 방학중 보충수업을 철회시키는 성과를올렸다. 이에 자극받은 대전의 보문고, 서산 해미고, 홍성의 홍성고 등에서도 보충수업·자율학습의 폐지를 주장했다.

뒤이어 잠잠했던 서울지역에서도「학생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보충수업·자율학습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등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문교부에서는 방학하기 불과 며칠전, 전학교에 중3과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보충수업 철회지침을 시달, 간신히 그 여파를 막을 수 있었다. 보충수업·자율학습 철폐투쟁은 학생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쟁취 투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은 비인간적인 입시제도의 완전한 철폐와 참인간교육의 디딤돌로써 보충수업·자율학습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생 운동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자율적인 써클활동을 기초로 하는 직선제 학생회 쟁취를 들 수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 보장되는 서클활동이란 유명무실한 C·A(특별활동)와 관제 서클(한별단, R·C·Y, 보이스카웃등) 외에는 거의 없다. 오직 학생들에게는 집과 학교의 단일적인 통로만 허용되어 있을 뿐, 자유와 자율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자율이 있다면 공부하는 것과 말을 잘 듣는 것뿐이다. 이러할 때, 고교생들의 직선제 학생회의 요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직선제 학생회는 자율적으로 고교생의 집단적인 역량을 합법적이며, 공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적인 직선제 학생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했던 사례는 근래에 많이 발견된다. 4월 16일에는 서초고교생들이 간선제에 의해 구성된 학생회의 무효를 선언하고 학생회를 전교생 직선에 의해 자율적·민주적으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27일에는 경남 대아고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해 회유하고 협박하며 탄압을 가하는 학교에 반발, 학생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며 2천여명이 농성에 들어갔었다.

지난 9일에는 경북 구미 금오여고에서 학교재단비리및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한 부학생회장을 퇴학시킴으로 인해 약4백여명의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학생들의 직선제 학생회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운동의 대중적 확산이 당면과제

수십년간 거의 단절상태와 다름없이 진행되어왔던 고교생 운동은 이제 집단적인 진출을 강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들을 정리해내고 축적된 성과물이 거의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해내기란 여간 어렵지않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기초로 고교생 운동이 당면한 몇가지 과제와 방향을 정리하여 보자.

첫째, 고교생 운동은 대중적 확산과 아울러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내부이든 외부이든 고교생 집단을 사고하며, 전망을 세우고, 헌신할 수있는 고교 운동가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의 모든 노력은 활동의 광범위한 대중확산을 꾀하면서 대중적 기초를 튼튼히 해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교생에 대한 지원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타세력의 바른 지원은 고교생이 자주적인 역량을 갖춰내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다. 더우기 대학교 학생운동이나 교육현장 내부에 있어서 교사운동에 의한 지원은 고교생운동의 내용과 그 방향성을 갖추어 나가는데 기여한다. 이전과 같이 고교생들과의 관계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된다면 그것은 바른 지원이 되기 힘들다. 분명히 지원세력은 그 집단 속에서 조직화되어야 하고 집단적 입장으로 관계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학생대중들의 다양한 조직체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좀 더 넓은 범위의 효율적인 조직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운동의 통일성·의식성에서 발전 보여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들이 문화적인 소모임이나 독서모임으로 형태의 확산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직인 직선제 학생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조직들은 많은 부분에서 음모적으로 비밀화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학생들의 억눌렸다가 터져나오는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는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와의 연대와 결합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공동적으로 투쟁하며 연대하는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은 특히 교육현장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현장내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결합은 의식수준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뿐더러, 상호 더욱 활기찬 운동을 전개해 나갈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인간화 교육을 한걸음앞당길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관계를 훨씬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기층 민중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 것이나 교육현장 내에서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달리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현재 학생들이 받고 있는 모순전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매일을 죽음으로 항변하는 학생들, 어떤 집단 보다도 정열적으로 불의에 맞서며 아픈 몸통아리를 부둥켜 안고 용기있는 사회적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고교생들에게 뜨거운 가슴을 열도록 하자.

강 주 성
<한국기독학생회 고등부교사>

농협장 농민의 손으로 뽑자

농업 협동 조합의 민주화 과제

지난 4일 경북영양군의 7백여명의 고추재배농민들이 폭락한 고추값에 대한 대책을 관계당국에 요구하는 집회를 비롯 농민들의 농협에 대한 권리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8월 청송군에서도 농협측의 해명발언에서「농민들의 무식한 탓」으로 답변을 한데 격분, 농민들이「고추값 제값받기 농민대회」를 열어 항의한바 있다.

농민들의 잇달은 시위는 농산물수입으로 인한 연쇄가격파동, 수세 의료보험비등 과중한 세금과 잡부금 특히 생산비도 안되는 농산물 가격은 호당 4백만이 넘는 빚더미만 안겨주었다. 농협은 농민의 농민에의한 농민을위한 조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위해 농민의 자주성과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협동조직체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볼때 이와같이 본래의 제기능을 다하기는 커녕 농민을 기만하고 마치 농민의 빈곤이 농민의 무식탓이라고 농정의 잘못을 호도하고 있다.

농민이익대변하는 협회 구성시급

이는 농협이 지금까지 61년의 임시조치법에의해 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관제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농협민주화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오랜동안에 걸쳐 있어왔다. 작년 8개 농민단체들이 모여 농협민주화공청회를 열고「전국농민 단체농협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한바 있다.

농협민주화의 추진방향은 농민들의 전반적인 운동을내에서 위치를 바로잡는 데에서 출발한다.

농협은 경제조직체이며, 농협을 통해 독점자본과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교섭이나 투쟁을 수행할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민의 대표성은 자주적 농민회 (협회조합) 에 있다. 기본적성격이 경제체인 농협을 농민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 (투쟁체) 인 농민회, 농민협회, 농민조합이 뒷받침할때 농협의 기능이 살아 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협

농산물 값 폭락엔 대책없어

경제조직체로 재벌기업에 대항해야

87년 6월 민주화대투쟁과 7、8、9월의 노동대투쟁 이후 대통령선거과정에서의 국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야당은 패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8년 총선에서는 반농민적, 반국민적입장의 민정당을 패퇴시켰다. 이런 일련의 정치정세변동속에서 민주화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따라서 농협민주화의 기본성격은 제도의 민주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바로 농민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서 농협을 농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고추제값받기싸움」에서 나타나듯이 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제기한다. 조합원과 총대의원 임원들이 농협을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조직으로 움직이게 해야한다.

최근들어 작년에 이어 3、4월의 수세투쟁과 수입저지농민투쟁이후 농민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여소야대국면에서의 농업관계악법 개폐와 제정문제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개정될 농협법은▲농협 성격은 경제(단)체로하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을 최소한의 규정을 담는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해 총회에서 결정하게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단위농협의 민주화, 자율성을 위해 중앙회의 기능축소를 그 기본방향으로한다. 또 중요한 민주화방안은▲조합장직접선출▲이사감사활성화▲총대숫자확대▲운영위폐지▲연합회 (과거의 중앙회) 의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단위농협의 자주성보장▲연합회장 (농민단체의 주장이며 과거의 중앙회장) 의 전농민직접선출 (조합장으로 구성되는 총대의원 회 선출주장도 있다) 등이 주장되고 있다.

농협법개정 방향

법이 나아진다고 농민의 처지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농민들의 합법적 활동공간이 넓혀진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농민과 농민단체는 야권이 농민적 입장의 농협법을 관철토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농협민주화쟁취를 위한 서명작업도 있으나 큰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이는 농민들의 요구가 직선제주장의 서명 이상임을 의미한다. 영농자금회수기간내의 상환거부가 함평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연말의 농가부채백지화투쟁은 바로 농협민주화운동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수세납부 거부투쟁」과 농협싸움의 결합의 중요한 의미를 지난다. 농민들은 어떻게 농협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쟁취할것인가?

농협민주화쟁취투쟁을 위해선 농민역량이 한곳으로 모여야하며 또 그결과가 전체농민역량강화도 수렴되어야 한다. 면、군단위에서는 농협민주화쟁취를 위한 임시대책위를 만들거나 그「준비위」혹은 담당부서를 둘 수있다. 바로 농협민주화추진체제를 통해 농협의 실태▲농협돈을 소수 유지들이 돈놀이하는 것▲재벌상품의 대리점화▲선거때의 정부시녀역할▲고추값폭락에 대한 무방비▲쌀값수매시 생산비도 계산안하는 어정쩡한 태도▲그에비해 조합장등 직원들의 엄청단 월급판공비등을 폭로한다. 또 면마을단위에서의 민주농협쟁취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농민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고 또 모이게 하여 민주화쟁취 필요성을 알리고 해결의 주체로나서게 해야한다.

일의 순서로는 농협민주화쟁취추진위원회의 구성→교육·선전활동→민주 농협쟁취대회로 발전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에서는 준비위를 구성하며 조합원과 후계자, 여성, 청년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선전활동은 전국단위농민조직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사、연구、분석된 내용을 마을지역형편에 맞추며 내용을 대자보、현수막、만화등 형태로 알리며 특히 마을방송과 차량방송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전국단위에서는 농민단체의 입장에서 농협법을 마련、야당이 이를 추진토록 하게하며、단체지역간 연대활동도 벌여야 한다.

농가빈곤、농협도 책임져야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심해지면서 유지들이 농협에서 빌린 돈이 부동산투기에 쓰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특히 값이 폭락한 고추값대책에 농협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헐값에 일부만 수매해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은 묶어 놓고 있다. 불량고추종자로 인한 피해농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85년도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농협의 종자사업을 중지하였다. 이번 쌀값도 생산비를 근거로 수매값을 주장하지 않고 도농간의 소득보상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농민단체들의 쌀값 가마당 10만7천원선주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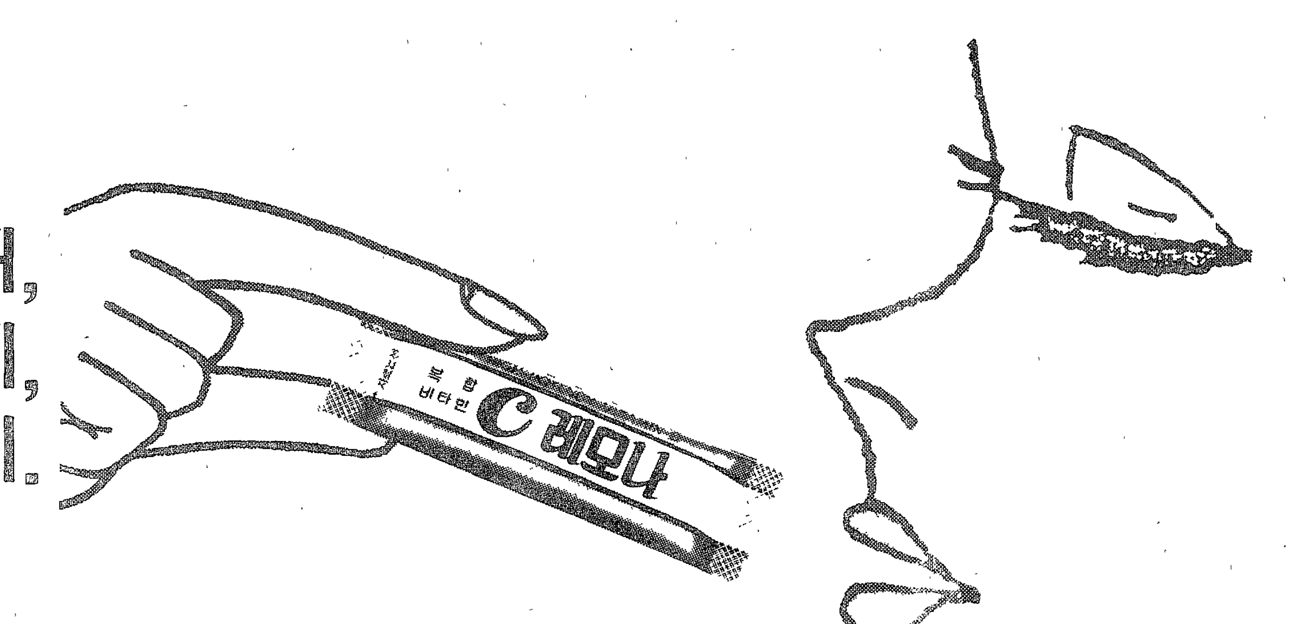
농협은 이렇듯 할일은 안하고 농민들의 주장을 왜곡시키고, 훼방놓는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강요하고 단합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농민, 농업, 농촌은 독점재벌과 외국농산물에 무방비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일을 농협이 하고있는 것이다. 농협민주화쟁취투쟁은 농민들에게 있어 중대한문제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타 올랐던 수세거부투쟁,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의 철폐와 통합일원화쟁취투쟁, 농산물수입반대투쟁, 또 하반기에 제기될 농가부채백지화싸움과 농협민주화투쟁은 똑같은 농민문제의 여러가지 표현이다.

농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으로, 이론으로 뭉쳐 농민대중의 의사가 관철되고 땀의 댓가가 실현되도록 싸워나갈것이다.

김 기 영
<전국농민협회 회원>

맛좋고 • 먹기좋고 • 효과좋은 비타민C—레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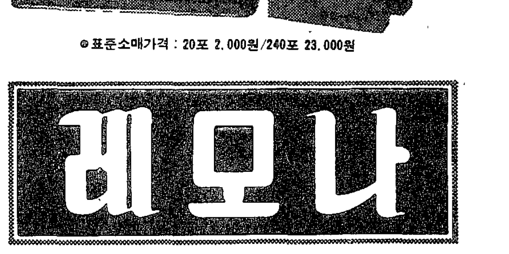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피로할때,
기미·주근깨에,
거칠어진 피부에.

먹는 화장품?

아름다움의 요소—비타민C
부드럽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원하시는 여성에게
비타민C「레모나」를 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아는
여성의 센스있는 선택—
「레모나」는 체내로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비타민C 제제입니다.
*레모나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표준소매가격 : 20포 2,000원/240포 23,000원

레모나

경남제약주식회사

■피부미용에 ■감기예방에 ■공부할때 ■여행·운전할때 ■운동전후에 ■술·담배전후에

(올림픽) 영구분단의 상징 "반쪽짜리 횃불"

민족동질성 회복의 문화운동 전개해야

통일문화 큰잔치…"남북이 함께"

통일문화 큰잔치를 통해 남쪽문화운동 세력의 총연대는 물론 북쪽예술인의 참여도 시도해야

80년 광주의 핏빛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 발음도 낯설은「쎄울! 쎄울올림픽」。「광주민중」아니「4천만 남쪽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절절한 염원이 또 한번 간악한 자들의 만행에 유린당한채 던져진 그것。날짐승을 길들이기 위한 또 하나의 미끼였던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 잠실벌에는「인류의 대제전」이라는 허울 속에 영구분단의 상징 반쪽짜리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올림픽신화를 운운하며 마치 금방이라도 배고픈 우리들에게 빵한조각이라도 던져줄듯 선전을 해대던 그들의 또하나의 본질적인 음흉한미소를 우리는 너무도 잘알고 있지 않은가。이땅 열혈청년으로서 모든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으려 자기 한몸아끼지 않았던 분신노동열사·통일열사의 그가슴아픈 주검,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양심수들이 0.7평 독방에서 바퀴벌레처럼 취급당하는「영어」의 현실, 삶의 최소한의 근거지 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무심한 하늘만 쳐다보며 우는 아이 빈젖 빨리던 유랑자 아닌 유랑자 철거민들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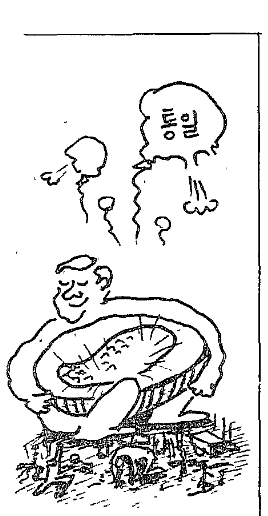
모든 악의 근원 미·청와대독재는 이런 아픔을 뒤로 한채 평화올림픽을 운운하고 있다。우리는 누차 공동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국통일에 공헌함을 지적하였건만 미·일 외세를 등에업은 노태우정권은 단독올림픽을 개최하고 말았다。그들은 이른바 안정속에 평화올림픽 개최라는 명목하에 야당세력에게 정치휴전을 강요하였고 기회주의적인 야당은 그제의를 당연스레 받아들였다。또한 전국경찰에 4단계 비상경계망을 내리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총없는 계엄령인 소위 평화구역이라 지정하여 그 지역에서는 아이 울음소리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대학가, 경기장, 성당, 법당에는 군인들, 전경, 정사복경찰, 정보요원들로 뒤덮히고 도처에서 애국학생들과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검거열풍이 일고 있다。그리고 자주·민주·통일과 민중생존권을 위한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쪽의 침략위협을 떠들면서 남북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그리고 영구분단의 술책인 두개의 한반도정책의 그 실질적 단계인「남북교차승인」「북방외교」를 마치 민족번영의 최대의 길인양 떠들며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의 단독개최를 지원하는 미·일의 태도는 어떠한가。미국은 북의 도발을막는다는 명분하에 주한미군을 증강하고 한반도 주변해역에 2개의 핵항공모함을 주둔시키고「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구실아래 1백70여개가 넘는 군함과 잠수함, 2백여대의 전투기와 수만명의 군인을 끌어들여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군과 한·미·일 합동전쟁연습을벌임으로써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보았을때 88단독서울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이후 민족통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수있다。

한편 노부모를 두고 있는 노동자·농민·도시 빈민들은『죽기전에 나도 한번 올림픽 경기장에 가보고 싶다』라는 부모의 말을 들을때마다 허탈해 할 것이다。경기장에 들어갈 표를 살수도 없거니와 편안히 경기를 관람할 여유조차 없다。이렇게 분단올림픽은 진정 남쪽 4천만민중의 것이 아니라 소수 지배계급의 황홀한 연회장에 불과한 것이다。또한 저들은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민중의 고혈을 짜는 돈을 들였던가。정부에서는 올림픽에 소요되는 경비를 9억2천만달러와 간접비 20억8천만달러로 모두 합쳐 30억달러에 불



과하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이것은 민중을 기만하는 허위발표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장 체육시설, 선수촌등 직접비만도 최소한 16억달러가 들고 교통, 통신시설, 교통확충시설의 완비등 30여개 예상공사비만도 무려 41억달러가 든다고 한다。그렇다면 올림픽에 투입되는 자본은 직접비 16억달러를 포함하여 모두80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볼수있다。이 엄청난 외채의 부담은 결국 누가 지게되는가? 소수 지배계급의 화려한 잔치상을 위하여 우리 민중들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이 단독올림픽의 반통일성과 반민중성을 지적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모든 민족민주세력은 이러한 단독올림픽의 피폐를 선전하고 아울러 함께싸워나가야 할 것이다。이에 문화운동진영에서는 오랜 분단상황속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들과 성과물들을 모아「제1회 통일문화큰잔치」를 개최하게 된것이다。이는 단독올림픽의 분단고착화 음모를 막고자 하는 조그마한 노력의 일부로써 특히 민족대화합의 제전이 될수 있었던 공동올림픽이 무산된 것을 그저통탄하는데 머물지 않고 더욱 점진하여 한시도 지체할수없는 통일장정의 길로 총진군할것을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제1회 통일문화큰잔치」를 통해 통일문화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좀더 내용성 있는 준비를 위해 남쪽문화운동세력의 총연대를 꾀하고 이어 북쪽예술인들의 참여도 시도해야 할것이다。비록 이번 행사가 비생산적인 행사위주가 되더라도 우리통일운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이다。

서 민 해
<통일문화큰잔치 기획담당>

느긋해지기 운동

5년전 필자가 本校와 자매교인 서독의 레겐스부르그대학에서 첫 한학기를 힘겹게 보내고 있을 때 어느날 갑자기 대학의 곳곳에 소위「대자보」가 나붙기 시작했다。한 쪽 벽면을 덮을 정도의 큰 종이에 짧막하게 제멋대로 휘갈겨 놓은 것이 독일어 서예전(?)이라도 보는 것 같아 매우 신기했다。내용은「빈차 태워주기」운동。

요즘 서울의 올림픽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운동은 그러나 당시 서독의 학생들에게는 시내버스회사의 조치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학생들은 그 동안 큰 폭의 요금할인을 받아 왔었는데 회사측에서 이 혜택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이 운동은 조용한 가운데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이 조치는 철회되었다。작년 7월, 이 자매대학이 개교 2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州수상을 비롯하여 많은 귀빈이 참석하였다。本校의 총장님께서도 마침 이날 거행된 양교자매결연 조인을 위해 특별귀빈으로 참석하시었다。경찰이 학교 일대의 교통을 통제하고 식장주위의 검색을 강화하자 평소 이런 분위기에 어색한 학생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당일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다음날 부터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운동이 또 한차례 일고 있었다。그날 경찰로부터 부당한 제제를 받고, 교통통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학생회사무실에 개인의 경험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이런 평온하고 자발적인운동의 결과 州정부는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였다。이러한 것들이 바로

李東雄 <한의대교수·생화학>

서구의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아닌가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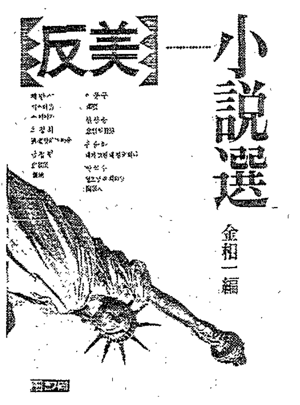
우리네는 너무 시끄럽고 급한것 같다。모든 일이 떠들썩하게, 빨리 해결되어야 직성이 풀린다。이런 가운데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려고하는 여유를 갖기 어렵다。이 가을에, 우리모두「느긋해지기 운동」이라도 펴봄이 어떨까 조용하게。

書評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려는 투쟁적 작품
미제국주의와 매판권력 타파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소설통해 미국을 발가벗기는데 성공

외압에 의해 분단된 조국에 반세기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강요된,「미국은 외세가 아니라 혈맹」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반미 구국의



기치를 드높인 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였다。80년 광주 민중항쟁과 대학생들의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후「반미자주화」는 표면화되었고 외세에 의해 두동강난 이 땅의 현실이 부각, 미국에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도출되었던 것이다。특히 요즈음 미군의 폭행과 관련, 한미행정에 관한 문제의 대두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반미논리를 부채질 할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지상목표가 자주·민주·통일임을 상기할때, 이땅에 침략군을 주둔시켜 조국강토를 강점하고 70만의 용병군을 양성하고 우리나라를 핵기지화하여 핵전쟁터로 몰아가고있는 미제국주의와 그 체제에 기생하는 매판권력을 혁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책은 열한편의 소설을 통해 미국을 발가벗기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이미 각 문학지에 발표되었던 기존의 소설들 중에서 편자는『민족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려는 투쟁적 작품만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개개의 작품들이 기저에 깔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 책은 우선, 반미의 시각에서 접근한 문학의 효시적인 채만식 선생의 작품을 서두에 실어 조심스럽게 주제의식을 타진해가고 있는데 특히 그의「논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미군을 미제국주의의 침략군으로 규정,「나라」가『어디서 툭 튀어 나와 가지구 걸(토지) 뺏아서 팔아먹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글 마지막에 일제에 의해 빼앗겼던 백성들의 토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팔아먹는 미국을 고발하고 있는데『독립 했다고 했을제, 내, 만세 안부르기 잘했지』라는 자조적인 주인공 한 생원의 독백이 우리 가슴을 끈다。

또한 최정희의「풍류잡히는마을」이나 이문구의「해벽」을 통해서는 미국에 의해 한 공동체와 경제단위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참으로 농민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덕이라면 양옥수수를 서울가서 수월하게 사다먹는 것외엔 다른 것이 없었다』(풍류잡히는 마을) 처음에는 무상원조의 혜택속에서 미국을 마치 구원자처럼 생각하던 사람들 이었지만 점점 미국이 속셈을 드러내자『독립이 한번 더 돼야』한다고 한숨을 쉬는 그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힘없는 비자주민의 슬픔을 읽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사포곶해안이「농촌 근대화 작업」의 하나로 폐항조치되자 드러누웠던 주인공은 외부 세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을을 재건해 보겠다는 의지로 분연히 일어선다。(해벽)

신상운의「분노의 일기」는 주한미8군사령부 산하의 병참보급대대에 연락장교로 파견된 김대위가 영내안에서의 한미간의 적대관계에서 드러난 미군의 우월감에 결국 탄핵되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미군 대령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너희 군 사령관은 결코 미합중국 장교인 내 의견서를 묵살해버릴 입장에 있지 않다』자신만만하게 내밸은 미군 대령의 이 한마디에서 소수의 미군 주둔군이 우리의 군대우위에 서있는 부당함을 느끼게되고 아울러 기지 사용료도 물지않은 채 남의 나라에 안보운운하며 진주, 자국의 이익만을 챙겨먹는 그들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양키 고우홈』을 외칠수박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박석수의 일련의 작품들은「쑥고개」라는 지역에 얽힌 연작형태의 소설들로서 지명이름이 본래 숯고개였던 그 지방이 미군측의 오폭으로「쑥고개」로 변하고 이어「마을에 미18전투폭격탄이 들어서면서 동쪽 어귀 1백80만평의 대지를 송두리째 비행장부지로 징발」함으로 해서 주둔한 군사문화에 의해 한지역문화의 하부구조가 전면적으로 파괴되어「술장사, 색시장사, 딸라장사, 옷장사」의「씹고개」로변화하는 한 기지촌의 창출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남정현의「자수민」, 유순하의「내가 그린 내 얼굴 하나」등의 소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70년대 유신정권하에서 쓰여지고 발표되어 소설의 톤(Tone)이 완곡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지만 요사이 쏟아져 나오는 운동소설에 앞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선두적인 소설들이며 특히 당시의 박정권이나 현권력이나 모두 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민중을 착취하는 미제국주의와, 정권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미제의 세력들을 유치하고 옹호하는 대동소이한 모습속에서 苦笑를 금할 수가 없다。

아울러 편자가 이책 서문에서 밝힌「米國」이라는 표기주장에 대해 퍽 흥미를 느끼며 이 책 전체를 꿰뚫고 있는「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끝으로 올림픽유치로 인해 기득권 유지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현정권과 미제국주의의 반민중성, 반통일성을 부기해 두고 싶다。

조 찬 우
<문학평론가>

東岳路

"권위적 군사문화에 살해된 우리의 모습…"

박 종 근。
63년12월1일生, 82년 本校 한의과대입학, 88년2월卒, 동년 5월 방위병으로 입대, 동년 8월1일 방위근무중 분신사망。

지난 17일 한마디말없이 떠난 그의 49재가 서울캠퍼스의 불상앞에서 열렸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생명입니다。불가에서 일체의 살생을 금하고 기독교에서 살인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故박종근열사는 우리가 당할수 있었던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바로 우리의모습입니다。이제 우리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 살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다。』

지난해 박종철열사의 은폐·조작된「탁」치니「억」하고 죽었다던 사망경위를 군사독재에 의한 고문치사였음으로 밝혀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신부, 그도 박종근동문의 어이없는 죽음앞에서는 차마 더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박종근 그는 그냥 그렇게 갔다。인간의 생명을 경외하고, 죽음앞에 선 자에게「인간성에 있어서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인술을 공부한 그가 정작 자신은 삶에 대한 노력의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땅의 척박한 현실속에서 가증스런 권위적 군사문화에 의해 살해되어진것이다。그의 죽음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인간으로 존재하려는 삶에의 애착조차도 빼앗겨버린 자의 죽음앞에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치밀어오르는 투쟁의 의지를 다질 뿐이다。

그것은 故박종근 동문을 대신하여 인간이 인간으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인간의 도덕도 양심도 상실해버린 군사문화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리라。<이종석記者>

문화단신

「뺑파전」공연

김일구국악단에서는 고전해학 창극「뺑파전」을 청파소극장에서 오는 10월9일까지 오후4시30분, 7시30분 하루 두차례씩 공연한다。공연예술기획으로 공연되는 이번작품은 창과 해학적인 재담을 흥겨운 춤에 실어 현대사회의 모순점들을 예리하고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문의전화 887—4494, 762—6507)

삐에로놀이 공연

극단 대중에서는 로베르벵쥐作·이창기연출의「삐에로놀이」를 오는26일까지 샘터파랑새극장에서 매일 오후 4시30분·7시30분 하루 두차례 공연한다。자세한 문의는 744—9937로。

단소강습회

국악동호인모임인 풍류회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단소강습을 1주일에 3회(월·수·금)씩 실시한다。

「블랙러브」공연

극단 춘추에서는 샘터 파랑새극장에서 오는 10월8일부터 11월24일까지 군인과 미녀와의 사랑을 담은「블랙러브」를 공연한다。

게시판

문학 아카데미 회원모집

중견문인들의 모임 문학아카데미에서는 시·소설·동화등 3개부문에 걸쳐 창작실기회원을 모집한다。

5개월간 10여회에 걸쳐 그룹별(10명내외)로 진행될 창작워크숍에는 시인강우식, 소설가 윤후명, 동화작가 정채봉씨등 문인 12명이 강사로 나선다。문의는 764—5057로。

教佛聯세미나

한국교수 불자연합회에서는 오는22일 同회강당에서 중앙대 류종민(조소과)교수의「한국불상의 특징」의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手話수강생 모집

사랑선교회에서는 시각·청각장애자나 자원봉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화·점자·보행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이 교육은 수화기초반은 2개월, 중급은 3개월, 점자·보행훈련은 16주간 실시되며 오는 23일부터 연다。자세한 문의는 334—8007로。

맹인봉사교육

카톨릭맹인선교회에서는 글을 볼수없는 맹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추계 낭독봉사자교육을 오는 10월29일까지 매주 토요일 본회 강당에서 실시한다。자세한 문의는 778—4610으로。

AIDS 여성논단

서울 기독교청년회에서는 오는22일 오후7시30분에「향락문화와 AIDS」라는 주제로 여성논단을 연다。연사로는 성심여대 이영자(사회학)교수가 나오며 올림픽을 계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한국사회침투와 만연가능성에 대해 진단한다。

동악廣場

어머니 민속교실

흥사단서울지부에서는 민속문화의 계승과 저변확대를위해 오는 11월18일까지 同강당에서어머니민속교실을연다。

전통무용, 민요, 판소리를강의하며 시간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자세한 문의는 743—5445로。

亞州사진예술聯 전시회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는 FAPA(아시아사진예술단체연합회) 회원국 사진전이 23일부터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전시실에서 열린다。

서화작품 모집

대한서화예술인회는 제2회 한국서화대전을 위한 출품작품을 오는 24일까지 신촌크리스탈미술관에서 접수한다。

공모부문은 서예·사군자·한국화등이며 입상작은 10월5일부터 전시된다。

문의는 332—2300。

자동차면허특강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운전면허 특강을 실시한다。장소는 동일자동차 운전학원이며 접수는 학생복지위원회에 하면된다。

OB맥주 견학

OB맥주에서는 오는 10월7일 견학버스를 운행한다。신청기간은 21일, 선착순 40명이며 신청은 학생과에 하면된다。

「가출기」공연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연극부 문밖사람들 제8회 정기공연<가출기>가 오는 21일부터 3일간 경희대학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있다。

栗谷學 학술대회

오는 21일 오후1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는 율곡사상연구원주최로 율곡학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이날 행사에는 본교 宋錫球 철학과 교수및 국내외 교수9명이 주제발표를 통한 토론을 벌인다。

지역감정 워크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지역감정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2차 워크샵을 23일 오후3시 삼청동소재 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文석남(전남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홍명(서강대), 송복(연대), 한상진(서울대), 조창현(한양대) 교수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에콜드서울展

현대미술의 종합전인 제13회「에콜드 서울전」이 지난 14일부터 오는25일까지 관훈미술관에서 열린다。

커미셔너 李逸씨가 선정한 60명작가의 출품작을 평면Ⅰ(회화), 평면Ⅱ(판화) 입체로 나눠 전시중이다。

황인호 서예전

白拔 황인호씨의 서예전이 오는21일까지 서울백악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732—6748。

서클활동

극연 신입생모집

극예술연구회에서는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다。연극에 관심있는 1학년재학생이면되며 접수는 써클룸에서 수시로 받는다。

바라밀 회원모집

경주캠퍼스 그룹사운드 바라밀에서는 음악에 관심이있는 신입회원을 1학년을 대상으로 싱어부문 약간명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학생회관 지하연습실에서 매일오후 3시에서 5시까지한다。

고전극硏 공연

경주캠퍼스 고전극연구회에서는 오는22일 교내사거리에서 하회별신굿놀이 정기공연을 갖는다。

신입회원모집

경주캠퍼스 화랑도선양회에서는 새가족을 모집한다。우리의 전통에 관심이있는 분들은 써클룸(원효관옥상)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람。

호우회 정기집회

호우회에서는 오는21일 오후5시에 대보름맞이 정기대집회를 연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우회로)

석림회 MT

석림회법사단에서는 그동안 법사단 활동의 제반문제들을 토의하고자 하는 제2차MT를 오는20일오후 6시에 백상원 도서실에서 갖는다。(필기구 지참)

정각원 수요 법회

정각원에서는「根本佛敎의敎說」이라는 주제로 초청법사 경일스님의 설법을 오는 21일 5시 본교 불교학생회주최로 갖는다。

科동정

불교과 독서토론

불교학과에서는 87학번의단합과 친목도모및 과원들간의 의식공유를 위해 매주수요일 오후3시 만해시비뒤에서 책소리란 이름의 독서토론회를 갖는다。(책:아름다운 삶과 사랑을 위하여)

국교과 작품평회

국교과 변성기에서는 오는 21일 5시 르노와르에서 변성기 2집에 실을 작품총평회를 갖는다。(회원 전원참석요)

동문알림

배재학당 모임

배재고동문회에서는 오는 10월8일 오후5시『제6회 배재인의 밤』을 프린스호텔(15층)에서 갖는다。

중대부고·부여고

중대부고·부여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10월 1일 중대부고 운동장에서 10번째 연합동문회 체육대회를 갖는다。

백농체육대회

경기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10월1일 오전9시 중동고대운동장에서 제4회 백농체육대회를 갖는다。

서울동문회

서울고동문회에서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회비는 3천원)

경의선 체육대회

경의선 동문회에서는 내달 2일 오전10시 문산고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갖는다。(회비는 4천원)

울림榜

한줄기빛이기를

「찬란한 봄 햇살에 나는 탄식했다」…어느 詩人의 느낌처럼 羅의 자취는 파란 가을하늘에 나를 수놓았다。

파란하늘에 수놓인 나는 매무시 조차 가날펐고 羅의 음영은 내 눈가에 잔잔한 한줄기 이슬이 되었다。사랑하는 羅 부디 한줄기 빛이기를… —萬—

동악광장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린 공간입니다。科소식, 써클소식, 동문회소식등 여러분 주변의 생활에 대한 각종 알림사항들을 제보하여 주십시오。아울러 各 學科 행사의 광고나「울림방」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本社 문화부로 문의 하시기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박종근 사인규명여론확산

지난16일 공동대책위등서「국조권 발동」요구

49齋및 사인조작 규탄대회 열려

경주캠퍼스는 24일까지 추모주간

사인은폐조작 규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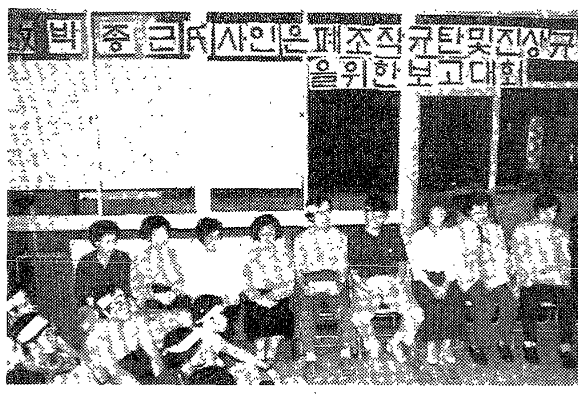
지난 8월1일 군복무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故박종근(본교한의학과88년졸)씨사인은폐조작규탄및 진상규명을 위한 보고대회」가 지난 16일 오후7시 서울및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민주동문회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로비에서 문익환공동대책위원회 공동의장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대회는 사인의 의문점, 투쟁경과보고와 성명서채택등으로 이어졌다.

문의장은 이 대회에서『우리는 왜 군사정부가 타도되어야 하고, 민주적 민간정부가 수립돼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더욱 극명히 알 수 있다』고 전제한뒤『획일화를 강요하고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군사문화, 특히 생명경시의 군사문화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진상조사위원장 김진선씨는 사인의 의문점 보고를 통해 분신자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신이 반듯이 누워있었다는 점▲배면(등어리)엔 화상이 없었다는 점▲안경이 그대로 씌워진채 테가 녹아 있었던 점▲손톱과 이빨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점 등을 들며, 사체부검후 군당국이 부모와 합의도 없이 급히 화장해 버린것은 더욱 타살의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당국에서는 이와 관련 예비군 중대장 권안정 상사를 헌병분대장 이이규씨와「뇌물요구협박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故박종근동문 사인규명을 위한「진상조사위」가 재야인사등이 참여한가운데 지난16일 결성됐다.

사인조작규탄범국민대회

지난19일 오후2시반 故박종근 동문 49재를 맞아「사인조작·은폐규탄 범국민대회」가 본교 서울및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진상규명공동대책위(21개대민주동문회 포함) 주최로 불상앞에서 열렸다. 이날 49제는 신경림 본교민주동문회장, 송재운학생처장, 김진철 사과대학장, 대승불교승가회공동의장 명진스님, 이경재 진보정치연합기획실장, 서동석 민중불교연합의장 권한대행, 김승훈 정의구현사제단대표·민통련부의장등 학생및시민 2백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부총학생회장 이호영(국문4)君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1부에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독경, 천도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이형섭 본교민주동문회 간사의 사전경과보고와 약력보고가 있은뒤 경주캠퍼스 한의대학생회장 최병학(한의학 本1)君이 경과보고를 한뒤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의장에 문익환, 계훈제, 이소선, 박형규, 신경림씨외 13인이 구성된 경위까지를 설명했다.

이어 故박종근동문의 여동생 박인숙씨는 인사말을 통해『세상에 비밀은 없기에 죽음의 진상은 밝혀지리라 믿으며 오빠가 군에 의한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면서 울먹였다.

이어 오대응평민당인권위부의장의 평민당입장발표가 있은뒤, 서동석 민불연권한대행의 故박종근동문과 지난16일 연행된 여익구 前민불련의장문제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었다.

한편 총학생회장 최재성(불교4)군의 성명서 낭독이 있은뒤 태극기와 영정을 앞세우고 종문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며「은폐조작 진상규명 국조권을 발동하라」「종근이를 두번죽인 군사문화 척결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친뒤 오후5시경 자진해산했다.

경주 추모주간 설정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산하 故박종근씨 추모제 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19일부터 오는24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은폐조작 범시민학생규탄대회등을 갖는다.

총학 1학기 감사 마쳐

예산및 사업감사 총6천6백만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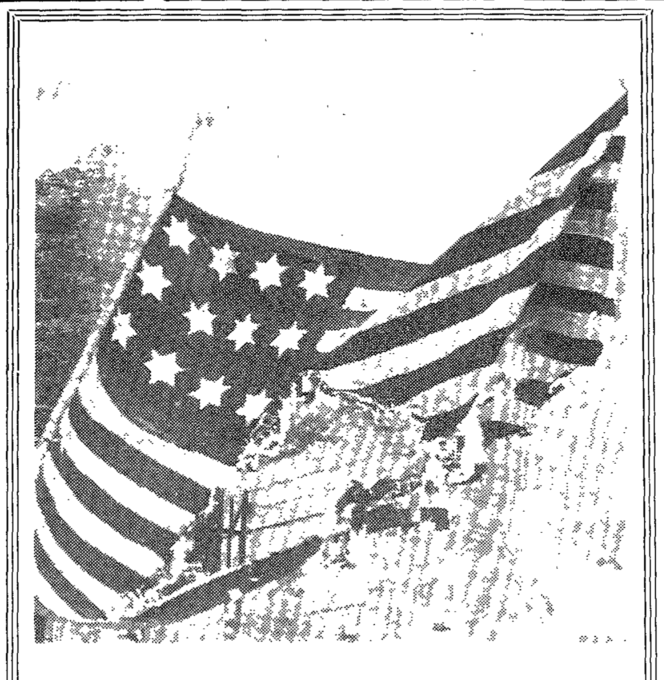
제20대 총학생회 1학기(4·12~8·31) 사업및예산감사를 지난16일 대의원총회산하 감사특별위원회(대표감사=이상호 야간강좌대의원의장)에서 실시했다.

총학생회의 1학기 사업활동, 학생회비인출금및 기타보조금등 예산부문, 대내외적 기여도의 3개부문에 걸쳐 실시된 이번 감사결과 평가에 따르면 사업감사의 경우 대동제, 학자투 낙산수련대회, 여름학교등을 대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다양하게 기획·진행되어 신뢰감을 조성한 반면 참여도가 저조했음이 지적되었다. 특히 학자투의 경우는 8개항의 쟁취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질적 결과물이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 예산감사의 경우 수입총액 7천2백10만8천7백원(학생회비 2천2십만3천원, 교비지원 4천7백34만5천7백원, 스폰서비 4백56만원)과 지출총액 6천5백85만6천5백60원(잔금 6백25만2천1백4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총지출액의 32·65%에 달하는 영수증의 미비및 누락이, 축제기간중 판매된 수건·T셔츠등의 판매금액(백여만원추정)의 누락, 낙산수련대회에서 예산의 과다지출(1천7백57만원)등이 지적되었다. 이에따라전반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이 지적되어 지난 16일 오후6시~오는 30일 오후6시까지의 학생회비 인출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여도부문에 대한 감사에서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결을 도모, 학생자치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과 대외적으로도 사회민주화운동에도 애쓴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써클연합회등에 대한 감사는 지난 7월중에 각각 실시되었다.



카메라 덧상

우리는 본래 하나였더랬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쪽입니다. 교활한 웃음을 흘리며 우리를 찢어지게 한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는 입술을 깨물듯 증오를 깨뭅니다. 증오를 태우듯 그들의 얼굴에 불을 붙입니다. 나머지 반쪽을 찾으려 투쟁을 불태웁니다.

<글=남정령記者, 사진=지희현記者>

경주5대總 출범

지난8일 "비민주 요소척결"

경주캠퍼스 제5대 총대의원회「출범식및 정기총회」가 지난8일 오후4시 도서관4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먼저 출범식행사에서는 제4대 대의원의장이던 장찬君(국문4)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는데 장君은 인사말을 통해『각자가 소신을 가지고 귀를 두껍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체성을 강조했다.

또 신임 대의원의장 노영환(영문3)君은 취임사를 통해『진정한 동국의 발전을 위해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는데 대의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힌뒤 중앙위원회임원진 소개를 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 총대협의장(정무식=영남대대의원의장)의 축사및 閔丙天부총장의격려사도있었다.

한편 출범식 행사후 가지려했던 학생정기총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연기되어 오늘 비상총회를 가진다.

체교과 농성풀어

체육교육과·체육부 학생들은 本紙(8월30일자, 999號)에 게재된 黃弼昊(철학과)교수의 원고에 항의하여 교수세미나실을 점거, 농성한지 14일째인 지난14일 농성을 풀었다.

이들 학생들은 농성을 풀면서 대자보를 통해 黃교수의「사과후 퇴진」등의 요구를 계속 주장했다.

기획취재

항로 못찾는 학자투 합의사항

학교측 유연…교수회 관망

역량재결집에 성패 달려

학교당국이 지난달 28일 3자연석회의 위원으로 李智冠총장, 李昌培대학원장, 邢基柱교무처장을 선임한 것을 비롯, 교과과정재편위를 제외한 학자투에서 합의된 기구의 구성을 마쳤다.

△학칙개정소위는 尹鍾安기획실장, 金秉玉교육대학원장 △동국발전위원회는 洪致裕이과대학장, 曺永祿문과대학장 △김인홍교수조사위원회는 韓相範법대학장, 金鎭轍사회과학대학장으로 위원을 각각 선임한 학교당국은 또한 교수회에 교수대표의 선임,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또 지난15일에는 李총장을 비롯한 학처장급 보직교수 21인의 명의로「친애하는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발표, 총학생회가 13일자로 총장에게 요구한 10개사항에 대한 학교당국및 교수의 입장을 밝혔다.

▲재단재산 처분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에 대해서는 재단의 문제에 학교로서는 간여할수 없으므로 불가하다. ▲기숙사, 재향군인회부지의 공사 착공요구는 경주캠퍼스의 의과대종합병원 건설, 포항기독병원의 인수등으로 재정상의 여유가 없으며 재향군인회 부지의 건물착공은 학생은 물론, 전동국인의 의견을 종합한 기념비적 건물로 세워야 하기때문에 졸속공사의 우려를 배제하기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하므로 빠른 시일에 공사는 불가하다 ▲8개항합의사항 공증과 서명 당사자의 공개토론회는 6월「학자투」기간중의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학원자주화, 민주화의 인식 공유로 충분하다등을 밝혔다.

또 같은날 학처장 일동명의로 된「친애하는 학생 여러분에게」란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총학생회가 요구한 10개사항이『학생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주장할수 없는 요구이고 교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학업에 전념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교당국으로서는 학사행정을 방해하는등 학칙위배 행위를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吳國根교수회장은 3자연석회의등에 교수대표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를『학생들이 교수회의를 전면부정하고 교수회칙을 기초한 교수의 처벌및교수회장의 퇴진등을 요구하며 교수들의 일에 학생들이 간여, 교권침해를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대표의 선임이 무의미하다』며『교수회는 8개합의사항의 실현을 바라며, 학생들이 교수회에 대한 배타적태도를 버리고 그 권위를 인정할때 교수회의 대표선임등 학자투이행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측은 학생들의 재단재산의 처분과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요구등에 대해『이사장이 약속한 기숙사의 부지는 현재 선정중이며, 이를 포함한 기타사항의 결정은 정기 이사회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와관련, 8개사항에 입각해 구성될 학생측 대표로 우선 교과과정재편위원회에는 △노송호(국문4) 오세민(불교3) △학칙소위에 정태균(토공3) 김연필(경제3) △동국발전위원회에 최재성(불교4) 이승민(영문3) △김인홍공동조사위원회에 배연섭(경제3) 이응순(정외3)군으로 구성했다. 또 3자연석회의 대표로는 최재성(불교4·당연직) 이승민(영문3) 장정배(정외3)군을 선정하고있다.

각과별 교과과정재편위원회가 구성된 학과는 불교학과, 국문과, 정외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농업경제학과등 대다수 학과에 구성되어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최근교수와 학교당국의반발움직임에 대응하기위해 학자투체계를 비상체계로 조직하였다.

학생들은 또 학생대표자와 과·단대 중앙학자투위장, 교과개편위원장을 포함하는「확대간부회의」를 골간으로하여 총학운영위, 학자투위원장, 교과개편위원장으로 구성되는「상임지도회의」를 신설, 매일 저녁8시에「상임지도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산하기구로는 정치선전국, 기획분석국, 선전국, 문화국, 섭외국, 현장지도국, 보급국을 설치, 학자투 완수를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12일의 총장과의 면담, 지난13일「최후통첩선포식」이후인 15일 학교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장의「서한」에「학자투」중앙위와 학생들은 합의의 8개사항의 명백한 파기일을 밝히며 오후2시「비상학생총회」를 갖고 교수세미나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6월 이후 지난한 투쟁으로 총학 몇몇 운영위원들의 회의 불참이 눈에 띄는가운데「비상학생총회」에서 제안된「총파업」이 아직까지 결론지어지지 않고 있다. 더우기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귀향하는학생들이 많아져 앞으로의학자투 순항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다시 학원자주화와 민주화의 열기를 재결집, 학교발전과 대학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전력을기울일수 있도록 역량을 재결집하는데에 2학기학자투의 성패가달려있다고보여진다. <김일·이종석기자>

회전무대

8년간 국민정신 환각제…다음의 靈藥(?)이 궁금

올림픽이 지나가면

○…카운트다운「0」을 알리며 여기저기 외국인들을 위한 박제된(?) 호돌이가 날뛰고 귓가엔 국민들이 낸 세금이 감탄사속에 사라져만가 이 결실의 계절에 서민들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귀하신 나으리(?)들께서는 TV아나운서의 격앙된 목소리와 올림픽 기사로 가득찬 언론, 이에 쏠리는 국민들의 함성에 미소짓고 있는 가운데 출판인은 잡혀가고 농성중인 노동자도 잡혀가고 국제적(?)인 군사훈련은 치뤄지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판.

이에 本회전무대子 올림픽후를 걱정하며 한마디『8년동안의 정신환각제(?)가효력을 다하면 그다음에는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요』

군대미필자 몸조심

○…故박종근 동문의 49재가 다 지나가도록 아직 그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는데. 『또다시 종근이와 같은 죽음이 없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는 진상조사위원회 한관계자의 말처럼 박동문의 죽음은 그 한사람의 일이라기 보다는 군대미필의 모든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남자의 죽음일 수 있는 까닭에 섬뜩한 느낌마저 들기도.

「종근이를 두번 죽인 군사문화 척결하자」는 구호에서도 나타나듯, 인명경시의 군사문화는 이기회에 근절하도록 사건의 전모를 확실히 밝히기 위한 노력들에모든 동국인이나 학우들의 의지를 모아야 해야 할것 같습니다요.

동악에 개봉관 등장

○…학생회관 1층에 새로운 극장이 생겨 학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것인즉, 학생회관로비에 비디오를 설치해 학생들이 추천한 영화를 중심으로 요즈음 부쩍 질좋은 영화를 상영해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것.

이는 플래툰·살바도르등 반전·반제의식이 탁월한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했는데 매번 학생회관 1층이 학우들로 메워지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그동안 교내 문화공간의 부족을 역설적으로 대변하는것 같아 씁쓸.

아뭏든 이번 기회에 학교내에 있는 문화공간의 활용방안이나 문화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듯.

군림하려는 경주총학

○…경주캠퍼스 총학생회가 출범한지 한달만에 보여주는 모습이 사뭇 위압적이라고.

푸른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전체교수회의서의 교훈(?)을 따르기라도하듯 총학이 최근 기자의 취재를 거부한것이 그一例.

또, 박종근선배 관련한 기사게재와 해설기사등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했는데 그 방법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씁쓸.

더우기, 폭력을 행사했던 지난 경주총학을 거울삼아 경주총학생회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할때인데….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한 헌신과 겸손이 학생대표들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요.

감사결과 보고서

1、감사대상: 제20대 총학생회(88·4·12~88·8·31) 학생회비 인출금및 기타 보조금(별도)、1학기사업、기여도

2、감사일시: 1988·9·16

3、감사위원
야간강좌 대의원 의장 이상호
공과대학 〃 〃 유정현
법과대학 〃 〃 조 현

4、감사결과 평가

〈1〉A감사(사업감사)
전체적으로 학우들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기획·진행되었다고 느껴지며 반면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대동제-행사속에 학우들의 참여부족. 「주점」관리 불철저
②학자투-신뢰감조성. 8개항쟁취 대처방안 비구체적. 학우상호간 동료감이룩. 싸움에는 승리했지만 구체적산물이 나타나지 않음.
③낙산수련대회-내용보다 형식위주의 소비적인 행사였다.
④여름학교-사업시도나 그 취지는 아주 건설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적은 참여율과 교육에 있어서 비조직적이었다.

〈2〉B감사(예산감사)
①영수증 미비、누락된것이 ₩21、507、660이나되어、총지출액(₩65、856、560)의 32·65%나 되었다.
②축제기간중 판매된수건、T셔츠(각각1、000枚)의 판매금액이 누락됨(약1백여만원 추정)
③여름학교교과서『민주동악』(1、000부제작)기재누락(등록금 4、000원)
④낙산수련대회 예산지출과다(₩17、570、000)
⑥전반적으로 비효율적임

〈3〉C감사(기여도감사)
①총학생회가 학우들간의 신뢰를바탕으로한 학생회체계를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함으로써、학생자치의 전환기를 이룩함.
②학우들과 호흡할수있는 다양한 행사로써 학우들에게 학교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③교내적으로는 학우들간에 질적 성숙과 단결된 힘을 과시했으며、대외적으로는 8·15학생회담등 조국통일과 민주화발전에 선봉적으로 참여하여、민족동국인임을 과시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5、감사상벌
①B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9월16일 18시~9월30일18시까지 학생회비 인출정지를 처벌함.
②담당자(예산) 서약서1부 작성.

〈별표〉

총학생회 1학기 및 방학중 예산결산(3. 1~8. 31)

항목 / 사업별	계획 예산	수입: 회비	수입: 교비 지원	수입: 스폰	수입: 계	지출
출범식	1,500,000		1,347,000	400,000	1,747,000	1,709,770
4, 5월	2,430,000	2,445,000		500,000 집행부기부	2,945,000	3,502,840
대동제	20,510,000	3,600,000	13,500,000	3,360,000	20,460,000	20,460,000
6월	1,550,000	1,550,000			1,550,000	1,517,430
수련대회	17,000,000		30,000,000		30,000,000	17,570,000
선수위안의밤	1,925,700	175,000	1,150,700	300,000	1,625,700	1,788,000
하계농활	2,700,000	1,700,000	1,000,000		2,700,000	3,350,000
집행부 엠티	100,000		100,000		100,000	99.710
운영위 엠티	395,000		395,000		395,000	393,250
선수전지훈련장 방문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여름학교	4,500,000	3,300,000	1,200,000	—	4,500,000	4,640,560
7, 8월	1,300,000	1,549,000			1,549,000	1,667,780
8, 15회담	1,200,000	1,200,000			1,200,000	1,183,250
학생총회	700,000	700,000			700,000	786,970
기타						5,000,000
소계		18,016,000	47,345,700	4,560,000	69,921,700	63,669,560
비상총학생회(3, 1~4, 11)	2,187,000	2,187,000			2,187,000	2,187,000
총계		20,203,000	47,345,700	4,560,000	72,108,700	65,856,560 (잔금: 6,252,140)

대의원총회감사특별위원회

제19회 全國大學美展 요강

1、취지
대학생들의 창작 및 예술활동을 진작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건실한 대학문화예술의 진흥을 기하며 대학상호간의 문화교류 및친선을도모하고자 전국대학미전을 동국대학교 주최로 개최함

2、전시회
▲기간: 1988년11월23일(수)~12월1일(목)(9일간) ▲장소: 국립현대미술관(제7전시실)

3、분야 및 작품규격
㉮동양화 액자포함 97㎝×122·8㎝이내(아크릴·유리부착못함) ㉯서양화 액자포함 97㎝×122·8㎝이내(아크릴·유리부착못함) ㉰조소 진열대포함 60㎝×100㎝×높이180㎝이내 ㉱공예 ①입체: 120㎝×50㎝×높이120㎝이내 ②벽면: 91㎝×116·8㎝이내(액자 포함, 아크릴·유리부착못함) ※귀금속공예작품의 진열장은 출품자가 준비한다. ※조소대는 출품자가 준비한다. ㉲환경및 제품디자인 73㎝×73㎝×두께3㎝ 판넬1~2매(액자부착못함) 실물 또는 모형규격은 1백20㎝×60㎝×높이1백50㎝이내 ㉳시각디자인 73㎝×1백3㎝×두께3㎝(액자부착못함) ㉴서예 표구포함 가로60㎝×세로1백80㎝이내(아크릴·유리없이) ㉵사진 1백㎝×1백㎝이내(유리없이 판넬로함)

4、출품자격 및 방법
㉮4년제 미술계대학 및 미술전공학과、교육대학등의 미술전공 재학생에 한하며、서예및 사진은 4년제 일반대학에서 전공구분없이 출품할수 있다. ㉯출품작수는 각대학에 초대 배정된 수로 한다. 학생1인 1작품으로 미발표작에 한하며 쌍작품배제(초대작품배정은 추후통보) ㉰공예와 환경및 제품디자인은 작가 이외의 보조제작자가 있을시 반드시 인명과 제작과정및 장소를 표기한다. 단、공예와 귀금속 가공품에 한해서는 각 쇼케이스를 준비한다.

5、출품작품배정 및 심사(인원에 따른 출품작 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동상: 설치학과및 재학생수를 기준으로하여 배정(학교별 자체심사 선정) ㉯은상: 대학별 완성학과수에 따라 1점씩배정(학교별자체심사선정) ㉰금상: 은상작품중에서 분야별 1점씩 중앙심사에의해 결정 ㉱대상: 금상작품중에서 미술계1점、디자인계 1점을 중앙심사 에의해 결정 ㉲서예·사진분야: 각 대학(교)당 각4점까지 출품할수 있다. 금상·은상·동상은 중앙심사에 의해 선정. ㉳각 교육대학은 미술계 1개학과로 간주、배정함.

6、작품접수
㉮일시: 88년11월17일(목) 10시~17시(1일에 한함) ㉯장소: 국립현대미술관(제7전시실)

7、작품심사 발표
88년11월21일(월)(각 대학으로 통보)

8、작품반출
㉮일시: 88년12월2일(금) 10시~17(1일에 한함) ㉯장소: 작품접수처에서 반출 ※당일 미반출 작품에 대해서는 분실및 파손의 책임을 지지않음

9、시상
㉮대상(문교부장관상): 미술계 1점、디자인계 1점·상금 각 1백만원 ㉯금상(대회장상): 각분야별 1점·상금 각 30만원 ㉰은상(예술대학장상): 완성학과별 각 1점·상금 각 10만원 ㉱동상(예술대학장상): 은상·금상·대상이외의 모든 전시작품

10、시상식
㉮일시: 88년12월1일(목) 14시 ㉯장소: 동국대학교 중강당

11、특전
대상 입상자에게는 동계방학중 동남아 또는 미주지역의 국비 단기해외연수 선발 우선권 부여

※연락처: 우편번호100-715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동국대학교 예술대학교학과 267-8131~9

1988년 9월 19일

주최: 동국대학교 후원: 문교부

여로니

오 황
<71>

새책안내

가위·가위·가위
권오룡外 著

한국사회에서의 중산층의 체험과 그들의 의식을 소설로 형상화한 「가위·가위·가위」는 1980년대 발표된 소설중 중산층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묶여져 있다. 지식인의 고뇌와 양상을 다룬「밤의 창변」, 중산층의 삶을 묘사한 「아리랑」 소시민적 색채를 띤 「귤」 등이 실려있다. <정음사刊·346面·3천5백원>

교사와 교육법
심임섭 譯

현행 교육법의 폐해와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교육행정의모순을 지적하고 교육법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한「교사와교육법」이 거름사에서 간행되었다.

「교육 실천과 법」「학생의 권리와 의무」등 10장에 걸쳐 교육법의 개선방향과 교육관계 법률과 판례를 상세히 싣고있다. <거름刊·346面·3천8백원>

영혼결혼
이인석 作

이인석의 장편소설 「영혼결혼」은 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황을 리얼하게 표출시켜 기존의 등단질서에 혁명을 일으킨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조국통일의 열망이 가열되고 통일논의가 분분한 시대에 반쇠붙이의 의지를 새롭게 천명하고<진혼시대>를 선포, 80년대 종반기의 문단에 신선한충격을 주었다. <현대문예사刊·270面·3천원>

”까짓것, 과외금지령 풀어서 인심이나 얻어보세„

꽁뜨

혁명은 내용적으로는 복잡다단하겠지만 적어도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었다. 구장자(具長者)는 그날 아침 보통때와 달리 보건체조와 가벼운 뜀뛰기를 건너뛰었으며 쓸개 씹은 것처럼 씁쓸한 입맛으로 하여 아침밥도 굶은채 집무실로 향했다.

『나으리, 백성들의 공기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며칠전에 시종이 이렇게 말했을때만 해도 장자는 콧방귀를 뀌었을 정도로 자신만만하던 터였다.

『뭐라구? 뭣때문에 그런다는겐가?』

『과외공부를 허용해달라는 주문으로 사료되옵니다』

시종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수가 없어 비교적 완곡한 표현을 썼다.

『고얀놈들. 그까짓 과외문제로 그래 야료를 부려? 몽땅 잡아넣게』

장자는 자신의 10년 전을 떠올리면 자다가도 얼굴 위에 웃음이벙싯벙싯 피어날 지경이었다. 전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천운이 따라주었는지아니면 할아버지 산소 덕분인지하루 아침에 장자의 자리에 터억 올라서서 온마을 백성과 시종들을 호령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전임 고(高) 장자가 시종놈이 휘두른 칼에 어이없이 저승으로 가는 바람에 시종장으로 있던 자신이 뜻하지 않게 장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처지이니 만큼 전임자와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던가? 다 들어주겠네』

취임한 직후 장자는 시종들에게 물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나으리의 장자 취임을 가장 원하지 않는 걸로…』

『고얀놈들. 기강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은 안되네』

시종 녀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더니 드디어 기발한 것이라도 생각한 양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치는 것이었다.

『나으리. 과외를 금지시킴이어떠실지…전임 고 장자님 시절에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이옵니다』

『흐흠』

장자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면서 머리 속을 굴리기시작했다. 그렇지. 내자식놈이 곧 성균관에 입학을 해야 할 나이지. 한데 그 놈이 신통치가 않단말야. 과외를 금지시키면 다른 녀석들도 내 자식놈처럼 실력이 형편없어지겠지. 흐흠, 그때 내 자식놈에게만 살짝 과외를 시킨단 말이지. 에헴.

장자는 큰 기침을 한번 뱉고 나서 가장 엄숙한 목소리로 과외금지령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과외는 드디어 온마을을 피폐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배운 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외의 추방을 선언하며…

구 장자가 발표한 과외금지령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 요컨대 이것을 어기는 학부모는 장자에게 불려와 곤장을 맞아야 하고 창고를 다 털어 세미(稅米)를 바쳐야 했다. 아울러 이 명을 어긴 학생은 서당이나 향교에서 추방 당해야 하며, 가르친 선생—대부분이 성균관의 유생들이었는데—은 성균관에서 퇴학당하고 또 볼기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쳇, 무식의 평등화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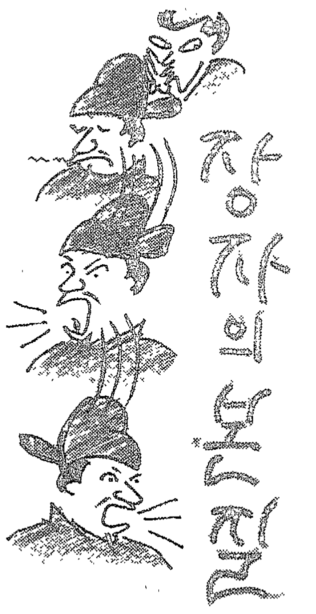
성균관 생원 하나가 이런 불평을 하다가 대책없이 얻어터진 때문인지 백성들은 거의 표정없는 얼굴로 장자가 내건 과외금지령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애시당초 과외와는 상관없는 백성들이기도 했다.

그처럼 수더분하고 어리석던백성들이 무얼 믿고 작당을 하여 나에게 덤빈단말인가. 장자는 생각만해도 분통이터질노릇이었다.

『나으리. 도령님이 과외공부로성균관에 입학한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듯 하옵니다』

속없는 시종놈이 장자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정보나 되는양 종알거렸는데 장자의 분노는 이쯤에서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놈들아. 그것은 너희놈들이 보안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서 신씨를 불러라. 신씨를』



”마을의 백년대계를 長者자신의 인기를 위해 朝令暮改해서는안될줄로 아옵니다„

신씨? 시종들은 어리둥절해 하며 문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신씨. 구 장자가 시종이었던 시절의 친구로 꾀많고 음흉한 위인이었다. 해서 장자는 그의 꾀를 빌리려 함일 게다.

『나으리 신씨는 이미 백성들과 한통속이 되어 나으리의 입장에 반대한다 하옵니다』

장자는 이 보고 한마디에 눈꺼풀을 까뒤집고 거품을 입술로 깨물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부분적이긴 했으나 혁명은 성공했고 포악한 구 장자의 뒤를 이어 신(辛)씨가 장자로 취임하여 마을을 다스리기시작했다.

『장자의 자리 내 놓으란 것만 빼곤 다 들어주겠네.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보게』

신 장자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장자란 사실에 기분이좋아 열렁뚱땅 너스레를 치곤했다.

『이보게 시종. 과외금지령을 해제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과외금지령 때문에 구 장자를 뒤집어엎은 백성들 아닌가』

『하오나 나으리. 교육문제는 마을의 백년대계이옵니다. 장자 자신의 인기를 위해 또는 개인의 욕심으로 하여 조령모개해서는 안될줄로 아옵니다』

구 장자와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한다는 문제에 집착해있던 신 장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침까지 꿀꺽 삼켜가며 시종 녀석의 미간으로 특유의 시선을 쏘고 있었다.

『백성들은 분명 과외금지를 무식의 평등화다 뭐다 반대하지않았던가? 그리고 전 장자와 내가 뭔가 다르다는 것도 보여야 할 게 아닌가』

『하오나 나으리. 그 점도 있읍니다만 백성들은 과외금지 그 자체보다도 전임장자가 자기 자식에게만 비밀 과외를 시켰다는데 공분했던 것이옵니다』

『오오라 그랬었군… 하지만 내 자식들은 이미 과외다 끝내고 성균관에 입학한지가 오랠세. 과외금지령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나이라네. 그 까짓 것 과외금지령 풀어서 인심이나 좀 얻어보세』

『하지만 백년대계를…』

『괜찮아 괜찮아. 내 자식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래두. 확 풀게 확 풀어』

장자는 꽤 흥분된 목소리로 「확 풀어」란 말을연거푸 뱉고있었다.

백 상 태
<꽁트작가>

화분을 만들며

조 민 환
<문과대 국문과>

화분을 만들기로 했다. 마당도 없고
꽃을심고 가꿀 여유는 더더욱 없지만
햇빛 따스한 골목에 앉아 사과궤짝을 뜯어내면서
올해는 기필코 꽃을 피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과궤짝에 박힌 작은 못들을 뽑아내고
요모조모 맞추어 보고 눈가늠도 하면서
작고 단단한 화분을 만들기 위해 새로 못을 칠 곳에
망치를 내려친다. 간혹 잘못 내려치거나 불에 덜 단련된 못들은
튕겨나가고 구부러지지만
정확히 내려치는 망치앞에서
못들은 비로소 제자리에 박혀 작고 단단한 화분을
이루어 간다. 꽃의 세상도 이루어져 간다.
내가 이처럼 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말없이 내려치는 망치에 의해
구부러져 뒹굴거나 정확히 제자리에 박히는 못들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구부러진 못처럼 버려진 노동에 대해
그 노동의 분노가 제대로 박혀 이루어내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햇빛 따스한 골목에 앉아 화분을 만들며
노동의 힘에 대해
더불어 만들어가는 한 세상에 대해

순수한 감정 잃어버린 1회용(?) 미팅

우리 대학생활에서의 미팅문화가 어느덧 선택의 여지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이며 더우기 비약적 발전과 개량을 거듭하여 널리 대중화, 생활화 되다시피 한 요즈음 이렇듯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한번쯤 살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성한 지성인의 사교의 장을 오도, 오염시키는 현재 대부분의 미팅의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치미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길 없어 감히 이에 전반적 비판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양기발랄한 근3년을 수도사 같은 금욕생활로 보내다가 갑자기 쇄도하는 이성과의 여러 만남기회들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분별없이 얼떨결에 나가도 보고 덩달아 이리저리 좇아 다니다 보면 오히려 이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선입관마저 생겨 티없이밝아야할 대학생활의 출발을 크고작은 상처와 함께 시작하거나 이성의, 가슴떨리던 맑고순수한 감정마저도, 어느덧 정신적 공허와 황폐감으로 여지없이 깨어지고 만다는건 지극히 안타까운일이다.

또하나, 일부 어떤학생들 사이엔 미팅이 단순히 하루 즐기기위한 discotheque 1회용(?)으로 까지 전락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공부하는 학생인가 하는 의구심과 기성세대의 퇴폐, 향락풍조를 이렇게 어설프게 모방해야만 하는 우리네 젊은 지성의 무력함에 가슴아플 따름이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학식이 있다고 양식이 있는게 아니듯이 뭘좀 배우고 아는 것이 있다고 지성인은 아니며,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학부를 다니는 지성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사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본능의 이성을 사귀고자 하는 내면의 자연스런 발로가 구체화되고 현실화 된것이 미팅의 정의 또는 발생 근원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는 단지 방법, 기구, 도구로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쌍방서로의 마음, 정신적자세가 존재한 연후에 미팅이라는 형식적 매개체는 '부수적 역할만 하므로 형식 그 자체를 두고 가부를 탓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몰지각한 풍토가 조성된 원인은 미팅이라는 적절하고 무난한 형식의 존속여부와는 관계없이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올바른 정신자세를 가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오가는 대화가 내용없는 말장난 비슷한 것이 아니다. 좀더 건전한 교류, 인생의 견해라든가 진지한 내면적교류를 지향한다면 아무리 짧은 만남이나 어설픈 만남이라도 서로의 정신세계를 성숙시키고 풍요롭게하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영 철
<공과대 전기공학과>

메아리

△烏飛梨落이라 해야 할까.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이하다. 지난 18일 오후 4·19직후의 과도내각수반을 지낸 許政옹이 향년 92세를 일기로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났다. 亡國의 설움을 누구보다도 절감한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활동하는가하면 해방후에는 제헌의원과 국무총리서리등을 역임했다. 4·19직후에는 외무부장관으로 과도내각수반직을 맡아 민주정부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5·16쿠데타 주역들의 민정이양 발표가 있자 군사독재 정부의 전복과 민정복귀로의; 간절한 염원에서 「민중의 당」후보로 입후보하였으며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야당후보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尹潽善씨를 지지하였던 일은 잘 알려진 바다. △그가 生과 死의 기로에 서있을때 버마에서는 그 이름도 생소한 「親衛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라고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통점이 남아있는 듯하다. 4·19를 계기로 민주정부가 수립되려는 찰나에 5·16이 일어났듯이 버마에서도 26년간의 철권정치가 종식되려는 순간에 역사의 반동이 일어났다는점이 그것일게다. △버마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있다.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군부의 폭압에 항거하는 학생을 포함한 시위대들이 집회금지령속에서도 수만명을 이루며 독재권력의 총탄에 맞서기위해 화염병과 창으로 무장을 하기시작했다하니 유혈극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버마의 총성

이미 지난 이틀간 수백명이 압제자의 총탄에 의해 스러져갔다는 보도는 더욱 애통하다. 허나 학생들은 이에 쉽게 굴복치 않을 듯이 보여진다. 『우리는 겁장이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것이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역시 학생들은「용감」하다. △버마의 상황은 서글픈일이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앞선다. 버마의 상황을 접하면서 80년 광주의 하늘이 문뚝 떠오른다. 수백 수천의 희생을낸 광주! 그러나 그당시의 폭압주역들은 지금도 權座에 앉아 올림픽으로과거의 역사를 덮으려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게 어리석은짓이라는 사실마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듯 하다. 여우가 가면을 쓴다해서 결코 양이 될수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있는 데도 말이다. 여하튼 버마의 하늘이 광주의 하늘 처럼 물들어가는것을 보면서 자꾸만 서글픈 생각이 든다. <煥>